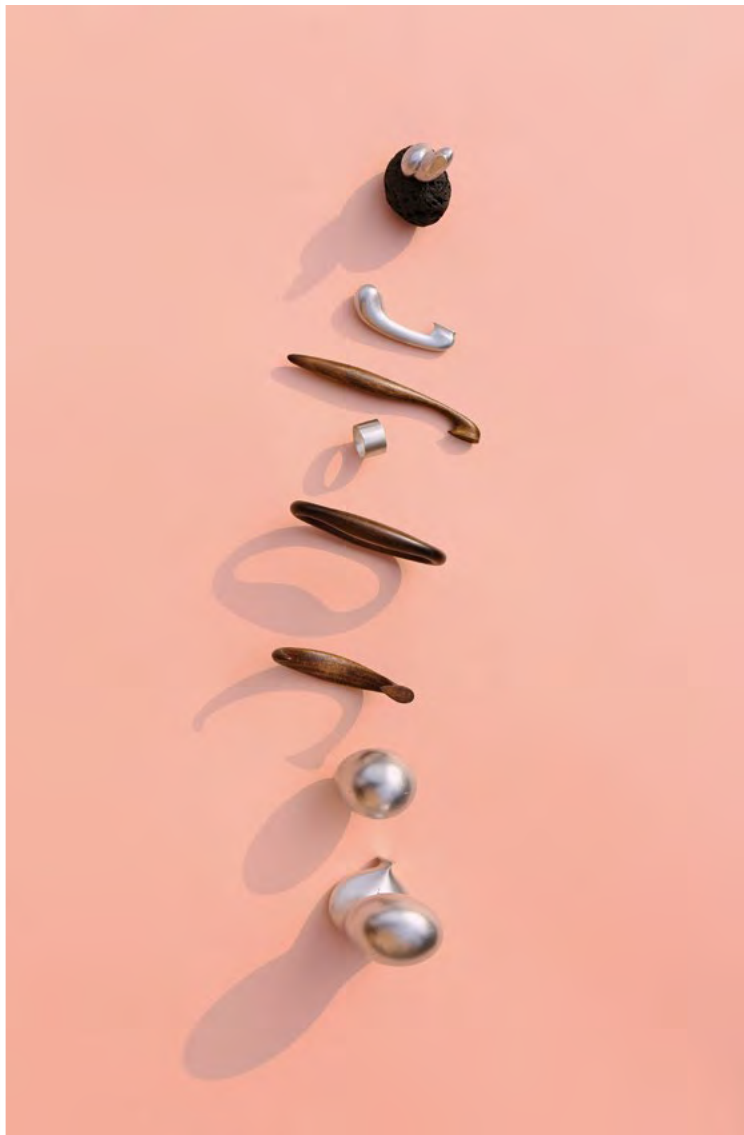


서울대 사람들

권오철

천체사진가

SNU
MAGAZINE
VOL.62



〈품(品): Citrus Peelers〉, 2014-2017, 알루미늄, 정은, 나무, 돌, 옷칠, 이주현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박사 졸업)

도 전 하 는 힘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에서는 누구라도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 자신이 믿는 가치를 등불 삼아 묵묵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사람에게는 특유의 담대함이 묻어납니다. 유연하게 생각하고 도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울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04 - 07

커버스토리

‘행복한 우주 먼지’로
지나온 궤적

08 - 19

서울대 구성원의 이야기

송은강 동문
안나 예이츠 국악과 교수
중앙동아리 서울대응원단
시흥캠퍼스본부 전략기획실·종합행정실

20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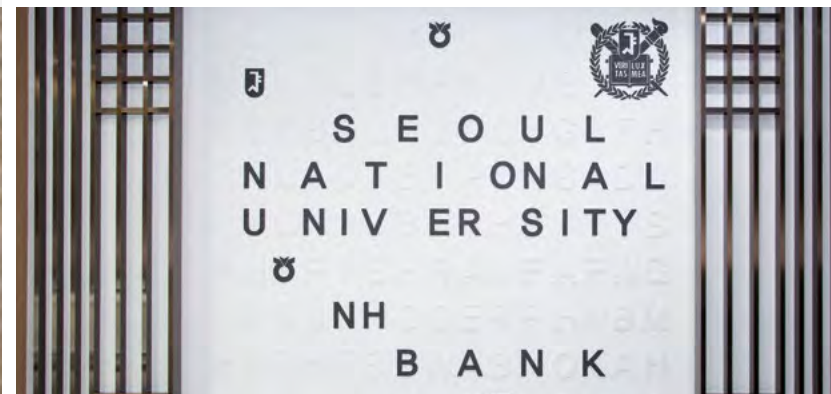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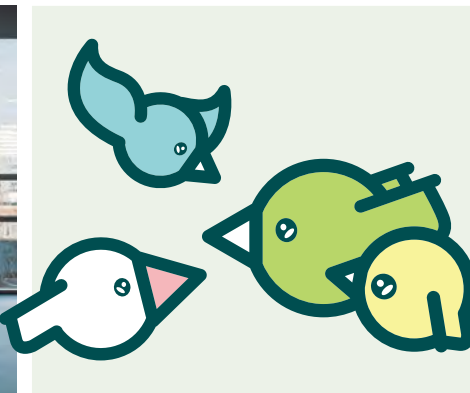
학교의 이야기

스누새편지
캠퍼스 소식
연구 노트
SNU 단신

28 - 40

나눔의 이야기

기부는 기록이다
기부와 나
마음을 잇는 이야기
발전기금 뉴스



시대의 흐름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사명을 정해
꾸준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도전에
투자한다면, 투자 자체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예술의 감동이 흐르는
온택트 서울대를 만나봅니다.

성과의 기준을 높이는 연습을 하면
좋은 성과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우주먼지로
지나온
궤적

권오철
천체사진가
조선해양공학과
92학번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 천체사진가이자 NASA ‘오늘의 천문학 사진(Astronomy Picture of the Day)’에 선정된 최초의 한국인으로 소개되는 권오철 사진가. 그는 광활한 우주 앞에 자신이 우주의 먼지라면 행복한 우주 먼지가 되겠다며 엔지니어에서 천체사진가로 인생의 궤도를 틀었다. 사랑하는 별을 온전히 알기 위해 노력해왔던 시간은 켜켜이 쌓여 그의 궤적이 되었다.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왔던 그에게 삶의 원동력을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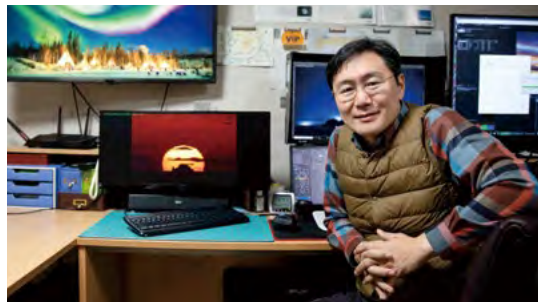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과학커뮤니케이터

국내 최초의 직업 천체사진가 탄생하다

권오철 사진가는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과 벤처기업에서 잠수함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일을 하다가 2010년부터 전업 사진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사진가 중에서도 생소한 천체사진가. 그가 천체사진가라는 직업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주 앞에서 인간은 아주 작은 우주 먼지일 뿐입니다. 어차피 우주의 먼지라면 행복한 우주 먼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았지요.** 미래가 불투명했기에 10년간 준비했습니다.” 그는 사진이 예술과 과학의 결합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천체 촬영의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그는 천체사진가로 전직하기 이전부터 천체를 촬영한 30년 동안 필름, 디지털, 영상, 타임랩스(Time Lapse), VR(Virtual Reality) 등 다양한 기술을 체득해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천문 현상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로라지요. 오로라의 움직임이 굉장히 신비로워서 사진에 담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로라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 움직이는 영상인 타임랩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타임랩스도 오로라의 매력을 담기에는 어딘가 부족했다. 고민 끝에 VR 촬영 기법을 이용해 촬영했고, 드디어 오로라의 신비로움을 오롯이 담을 수 있었다. 오로라 VR 영상 촬영에 성공하기까지 그의 촬영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영화 40도, 카메라가 얼어붙어 촬영이 중단되기도 하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 몇 주씩 머물면서 촬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름다운 천체 사진 촬영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끈기로 마침내 오로라 VR 영상 촬영에 성공했다. 세계 최초였다.

그는 오로라의 아름다움이 깊이 있게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로라 VR 영상에 오로라의 해설을 담았다. 해설이 가미된 오로라 VR 영상은 천체투영관용 영화로도 손색없었다. 그 연장선으로 2019년에는 천문학의 발달 과정을 담은 <코스모스 오디세이: 우주를 탐구해 온 위대한 여정>도 상영했다. “보통 천체투영관 영화의 러닝타임이 30분이에요. 이 영화를 깊게 이해하길 바라며 지난 8월에 『권오철의 코스모스 오디세이』도 집필했습니다.” 책에는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볼 수 있는 큐알코드도 함께 넣었다. 영화를 보면 책이, 책을 보면 영화가 궁금해지는, 결국 우주로 관심이 이어지는 콘텐츠를 만든 것이다. 필름에서 디지털, 영상, 타임랩스, VR, 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면서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의 직업의식이 궁금해졌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한 명뿐인 천체사진가라는 직업의 사명을 스스로 정의해봤어요. 제가 느낀 밤하늘의 경이로움을 다른 이들에게 온전하게 전한다는 게 제 소명의식이예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역을 연구해서 밝히는 사람들이 과학자라면, 그 밝혀낸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과학 커뮤니케이터예요. 저는 비주얼 영역에서 활동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을 증명해내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보인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이다. 이런 기록이 무색하게 일본인은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가 87.4km라며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권오철 사진가는 울릉도에서 찍은 독도 일출 사진 한 장으로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을 증명해냈다. 2014년, 광복 70주년을 1년 앞두고 이룬 쾌거였다. **독도 일출 사진은 정확한 위치 계산이 관건이기에 테크놀로지와 공학을 접목한 첨단 사진의 전문가인 권오철 사진가만 찍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독도에 앉아서 일몰을 보는데 울릉도로 해가 넘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독도에서 울릉도가 보인다면, 울릉도에서도 독도가 보일 텐데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진 겁니다. 계산을 시작했지요.” 울릉도의 시직경은 0.3도, 태양의 시직경은 0.5도. 태양과 독도를 일직선으로 맞출 수 있다면, 태양이 독도를 품은 겹작 중의 겹작을 찍을 수 있다. 매일 일출의 위치가 달라지기에 울릉도에서 독도와 태양을 일직선으로 볼 수 있는 건 연중 2월과 11월뿐. 2월은 쌓인 눈으로 진입이 어려워 기회는 11월뿐이었다. 하지만 촬영에 돌입한 그에게 시련이 닥쳤다. 날씨가 좋은데도 이상하게 독도가 보이지 않았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간과했어요. 해수면 밑으로 독도가 내려가서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둥근 지구를 고려해 삼각함수를 적용해보니 촬영 포인트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 위치에서 기다렸더니 조금씩 태양이 올라왔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아 두 번째 시도 만에 독도 일출 사진을 찍는 데 성공했지만, 그는 만족할 수 없었다. 더 좋은 사진을 찍고 싶다는 그의 불만족이 그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 것. 그렇게 세 번의 시도 끝에 그가 만족하는 독도 일출 사진 촬영에 성공했다. 완벽한 성공에 이르기까지 3년이 걸렸다.

불만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

“제가 사진을 찍고 갔다고 하면 그 장소가 유명해져요. 지금도 독도 일출 사진을 찍은 장소에 가면 사진가들이 줄 서서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2차 시도에서 성공했다는 이유로 사진을 공개했다면, 저보다 훨씬 좋은 사진을 찍은 사람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럼 최초라는 의미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불만을 꼽았다.** 결과물에 대한 불만이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만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칭기즈칸이 유언도 했잖아요. 성 쌓지 말라고요. 성안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성 쌓을 에너지로 무언가를 해야죠.” 그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사명을 정하고, 그 사명을 위해 꾸준히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다. “사진 작업할 때도 뜨는 분야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죠. 근데 달려가 봐도 이미 후발주자예요.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 사명을 위해 노력한다면 먼저 가서 선점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그가 시나리오 작업을 맡은 과학관용 SF 영상물도 상영될 예정이다. 그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해서 현재진행형이다. 권오철 사진가는 행복한 우주 먼지가 되어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꾸준히 다양한 매체에 도전하며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에서 공학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술을 응용해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문제해결능력이
공학하는 자세입니다. 이 문제해결능력으로
저의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송 은 강

계 산 통 계 학 과

8 2 학 번

우연히 미국 파견 근무에서 경험한 벤처캐피털은 송은강 대표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다. 삼성에 입사할 당시 삼성이 마지막 회사가 되리라 생각했고, 창업은 원래 그의 인생에 전혀 없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경험한 벤처캐피털은 ‘좋은 방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에 힘을 보태는 일’이었다. 이후 과감하게 삼성을 퇴직하고 엠브이피창투를 설립하며, 지금의 캡스톤파트너스의 대표가 되기까지 그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스타트업의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칭을 얻었다. 송은강 대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엘리트 창업자인 뉴칼라를 발굴하고 투자하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베푼 이유가 궁금해졌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뉴칼라*에 베푼하다

*뉴칼라(New Collar)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 계층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삼성 재직 당시 미국 Cambridge Samsung Partner에 파견 근무를 떠나시면서 처음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을 경험 하셨습니다. 벤처캐피털리스트(Venture Capitalist)가 되겠다고 마음먹게 되신 계기를 여쭙습니다.

벤처캐피털리스트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미국에서 3년 동안 Cambridge Samsung Partner에서 파견 근무하면서 벤처캐피털 일을 처음 경험했죠.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삼성을 퇴사하겠다는 아내의 반대가 심하긴 했어요. (웃음) 그래도 한번은 해볼 만한 일이라고 느껴서 엠브이피창투를 설립했고,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번은 해볼 만한 일’이라고 느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3년간 벤처캐피털을 경험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나요?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창업자가 있다면, 창업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 노력에 힘을 보탤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후회가 없는 투자죠. 지금도 저희가 100개의 회사를 투자 검토하며 고르고 고른 4~5개 회사에 투자해도 20%는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을 모아 최선을 다해 세상을 바꾸려는 협력을 보여주는 회사에 투자하는 일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투자의 핵심은 뉴칼라 발굴인 것 같습니다. 뉴칼라 발굴을 지향하는 캡스톤파트너스의 대표님으로서 창업과 뉴칼라에 대한 평소 생각을 들려주세요.

뉴칼라는 IBM의 CEO 지니 로메티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폴인(fol:in)의 임미진 기자가 『새로운 엘리트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뉴칼라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을 정리해줬어요. 뉴칼라의 개념이 마음에 들어서 저희도 차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투자한 대부분의 창업자가 뉴칼라 창업자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정육각’의 김재연 씨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의 ‘맛있는 녀석들 특집’에도 나오신 분인데요. 돼지고기 유통에 혁명을 일으키면서 창업한 지 3년 만에 월매출 30억을 달성했어요.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를 유통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어서 일찍부터 돼지고기 유통 일을 직접 배우면서 노하우를 쌓은 분이예요. 특히 생산설비의 효율이 좋은데, 생산기계 프로그램을 바꿔서 생산설비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이런 노력이 뉴칼라가 꾸준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돼지고기와 계란 유통만 하는데, 앞으로는 수산물까지 확장할 예정이에요. 저는 ‘정육각’이 신선식품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뉴칼라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특징이 있어요. 한 번에 여러 일을 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에 몰입하기 위해 무언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죠. 워라밸(Work-life Balance)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창업자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뉴칼라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답니다.

캡스톤파트너스는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할 때 모바일 게임회사에 투자하고, 빅데이터가 주목받자 인공지능 AI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면서 시대 변화의 논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벤처캐피털로 꼽히는데요. 시대 변화를 이해하는 대표님만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시장의 논리도 그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캡스톤파트너스는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Z세대(Z Generation)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행에 민감한 Z세대가 시장 변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안고 자란 Z세대가 느끼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경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가 투자하는 창업자의 관점으로 Z세대의 생각을 읽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는 창업자를 우리가 가진 자본과 네트워크로 후원해주면서 시대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지요.**

벤처캐피털 일은 꾸준히 세상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창업자에게 투자하며 인사이트를 얻으니까 좋은 일, 쉬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벤처캐피털은 돈 모으는 일이 가장 큰 문제이고 늘 어렵습니다. 저에게 돈을 맡겨주신 분들에게 제대로 돈을 돌려드리야 한다는 두려움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사람에게 투자했고, 대부분 좋은 성과로 돌려 드릴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 항상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마켓컬리’와 ‘직방’과 같이 좋은 성과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평생에 걸친 두려움을 극복해오신 방법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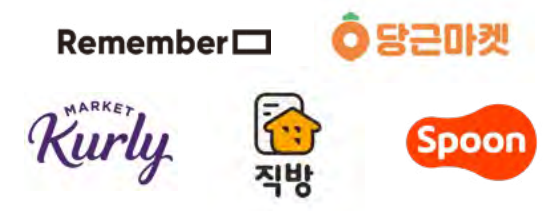
감사한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창업자인 엘리트 창업자를 만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엘리트 창업자가 우리를 찾아오게 하거나 엘리트 창업자가 가는 길목에 저희가 서 있으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팟캐스트 형태에서 현재 유튜브 형태로 변화한 <쫄지 말고 투자하라>에서 9년째 유망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재능기부도 하시는데요. 스타트업에 대한 대표님의 각별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지방에 있거나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 있지 않아 정보가 갈급한 창업자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쫄지 말고 투자하라>를 만든 2011년에는 지금보다 벤처캐피털의 인식이 안 좋았고,



서울대학교 동문창업네트워크



만나기도 훨씬 어려웠거든요. 벤처캐피털에 대한 편견도 깨면서 벤처캐피털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쫄지 말고 투자하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 순전히 재미 때문인데요. 남다르고 의미 있는 창업을 전개하는 창업자를 만나서 그들을 소개해주는 게 재밌습니다. 지금도 채널 구독자가 7천 명이 안 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쫄지 말고 투자하라>에 출연한 이후로 많이 성장한 회사를 보면 뿌듯하실 것 같아요.

투자를 했으면 마음이 놓이고 못 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웃음) ‘배달의 민족’이 그랬는데요. 출연 당시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다른 회사가 먼저 투자하는 바람에 놓쳤어요. 그래도 다음 라운드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한번 놓치면 다시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동문창업네트워크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문간의 창업 네트워크와 유대관계 형성이 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공식적으로는 서울대 AI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고, 나머지는 비공식적으로 서울대에서 불러주시면 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동문창업네트워크 토론회에 불러주셔서 사회를 맡았습니다.

정확하게 계수할 수는 없지만, 서울대 동문의 창업물이 미국의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나 스탠퍼드(Stanford University)에 비하면 오분의 일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흘러간다면 저는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엘리트 창업자들, 그중에서도 서울대 졸업생과 교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와 그 의지를 비즈니스적으로 풀겠다는 생각이 충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대 학생을 엘리트 창업자로 잘 길러낼 수 있는지가 서울대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

학교에 다니며 이미 창업을 경험해보고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죠. 대학 내에서 창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걸 도우려고 노력하는데요. 특히 제가 몸담은 벤처캐피털협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협회 사람들과 벤처캐피털, 서울대의 많은 창업자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캡스톤파트너스와 대표님이 가장 도전적으로 느끼는 분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이런 분야가 저희 투자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AI+X, AI를 기본으로 X는 무엇이든 치환될 수 있는 거죠. X 분야에 인공지능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문 중에 공대 전자과 수석 졸업하고 MIT 나와서 3년 전에 자율주행기술 스타트업 ‘라이드플렉스’를 창업하신 박중희 대표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쏘카를 렌트 예약하면 제주공항에 내린 후 쏘카 사무실까지 셔틀을 타야 하는데요. 이때 운이 좋으면 이 회사의 기술로 운행되는 자율주행 차량을 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세상을 바꿀 엘리트 창업자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일 큼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 같은 사람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저는 두 분에게 투자하지 못했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나타날 우리나라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선도기업을 만드는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뉴칼라의 5가지 조건

- 1 기술이 바꿀 미래를 내다보는가
- 2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있는가
- 3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 4 끊임없이 변화하는가
- 5 손잡고 일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국 악 과 교 수

안 나 예 이 츠

지난 9월, 독일 국적의 안나 예이츠 교수가 서울대 국악과에 임용됐다. 한국의 국악 중에서도 판소리에 매료된 그녀는 전공하던 정치학을 뒤로하고, 판소리 연구를 시작하며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홍보가 이수자 민혜성 선생을 사사했다. 2003년에 지정된 유네스코 세계 무형 유산이자, 국가 무형 문화재 제5호인 판소리. 안나 예이츠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판소리는 듣는 누구라도 공감 가능한 이야기다. 인류음악학의 관점에서 국악을 연구하는 안나 예이츠 교수에게 현대 사회 속의 국악에 대해 들어본다.

국악 연구의 지평을 넓히다

안
나
예
이
츠

국
악
과
교
수

교수님께서 인류음악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생소한데요. 인류음악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민족음악학, 종족음악학이라고도 불리는 학문입니다. 제 학습 배경을 살펴보면 음악학보다는 인류학을 더 많이 공부해서 인류음악학보다, 음악인류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연구 주제는 음악인데 연구 방식은 인류학을 배경으로 해요. 인류학의 연구 방법인 ‘현장 연구’나 ‘체험 관찰’과 같은 방법을 가져와서 연구하는 것이지요. 음악 분야에서는 특히 체험 관찰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악기와 소리를 직접 배우는 체험 관찰을 통해 그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국악을 처음 접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국악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문화적 체험을 하셨나요?

아시아의 전통 음악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처음 국악을 들었습니다. 판소리도 그때 접하게 되었고요. 당시 런던 한국문화원에서 판소리 공연을 봤는데, 그 공연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자람 선생님이 공연하시는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쏘는 대목’과 송순섭 선생님의 ‘새타령’을 보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막을 봤는데 나중에는 자막이 필요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는데도 소리와 몸짓만 보고 공연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언어를 초월하는 문

화적 경험이었습니다.

판소리에서 현장성이 중요하다는 걸 몸소 느낀 경험이었지요. 많은 사람이 판소리를 지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녹음된 음원이나 녹화된 영상과는 정말 달라요. 그때부터 국악에 관심이 생겼고 석사는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어느 날 보니 판소리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웃음)

직접 공연을 본 후로 판소리에 매료되어서 판소리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쓰시고, 유럽 지역의 판소리 대회인 ‘K-VOX Festival’까지 나가게 되신 건가요?

영국에서 1년간 판소리 스토리텔링을 연구했고, 한국에서 1년 동안 판소리를 직접 배워보면서 현장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부터 프랑스에서 ‘현의 노래’, ‘수궁가’, ‘숙향전’ 등 한국 문학을 번역하신 부부 번역가 한유미, 에르베 페조디에 부부가 만든 한국소리페스티벌인 ‘K-VOX Festival’을 알고 있었어요.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판소리 선생님이신 민혜성 선생님께서 매년 프랑스에서 소리 워크숍을 하고 계셨거든요. 상황이 잘 맞아서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됐어요.

우연히 참가한 대회에서 1등을 거머쥐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의 소감을 여쭙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판소리 워크숍에서 판소리를 배운 후에 혼자 연습해서 나온 대회였습니다. 제가 1등을 해서 기뻐다기보다 오히려 다른 참가자들이 판소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고, 그 마음이 존경스러웠습니다.

한유미, 에르베 페조디에 부부가 정말 대단한 게 프랑스에 판소리를 좋아하는 향유층을 만드셨어요. 파리에서 판소리 공연을 보면 서울에서보다 추임새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프랑스 사람들이 판소리를 듣는 방법을 제대로 배웠다고 느끼죠.

‘K-VOX Festival’ 1등을 하셔서 한국에 다시 오게 되셨는데요. 두 번의 한국 방문이 지금 한국에서의 삶으로 이끌었나요?

이 기회로 한국에 와서 광주에서 직접 공연도 하면서 판소

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페스티벌에 참가할 당시 한국에서 연구하고 싶어도 학생이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지요.

지난 9월 최연소로 서울대 국악과 조교수에 임용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느끼신 서울대의 첫인상도 궁금합니다.

좋은 기회로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어 서울대의 좋은 환경에서 국악을 연구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연구할 수 있는 사람과 공연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연구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지요. 서울대 국악과의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데요. 그 마음이 제가 서울대에서 받은 첫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의 산 근처에서 자라서 산만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창밖에 산이 보이니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코로나19로 강의에 제약이 많아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강의는 어떻게 하시나요?

비대면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대면할 기회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수업하면서 서울대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서 어려울 텐데도 질문도 많이 하고, 토론도 열심히 참여하니까 기쁩니다.

신임 교수이신만큼 교수님만의 특별한 강의 방법도 있을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소통하면서 강의하려고 노력하고, 3시간 연속으로 강의만 들으면 학생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영상 매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음악개론> 수업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각 나라의 음악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면서 보기 전과 후 그 음악에 대해 느낀 점을 써보라는 과제를 내주기도 합니다. 레포트를 읽으면 학생들이 음악을 깊이 생각하는 게 느껴져서 제가 더 재밌습니다.

교수님께서 서울대에서 가장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요?

음악대학 안에 인류음악학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 연구 방식이나 강의 내용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더 다양한 연구 방식을 경험하고, 자신이 향유하는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새로운 아이디

어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서울대에서 국악을 더 깊게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큼니다. 이 기회로 생기는 국악에 대한 다양한 이해로 연구를 더 다양하게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판소리: 현대사회에서 전통과 창조성을 조화시키면서”란 논문으로 런던대학교 아프리카 아시아 연구원(SOAS)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대 국악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지요.

많은 사람이 국악을 현대 한국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악이 전통과 과거에 갇혀있다고 여기죠. 근데 국악인들이 현대의 사람이지 않아요. 국악을 좋아하는 게 현대를 잘 이해하면서도 전통적인 걸 하겠다는 선택인데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악이 현대와 상관없고 지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편견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강의와 연구도 해나갈 생각입니다.

한국 관광 홍보 영상으로 전 세계 3억 조회 수를 기록하며 연일 화제인 국악 퓨전밴드 이날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회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전통 음악도 즐길 수 있고, 퓨전의 형태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이 꼭 다 좋지 않아도 많은 실험이 있어야 결국 이 날치처럼 수준 높고 재미있는 음악이 생기는 것이지요.

교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국과 외국에서 국악의 위상에 대해 여쭙습니다. 어떤 차이를 체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하게 외국에서 국악을 보면 한국 입장에서 자신이 없다는 인상을 받아요. 판소리를 완창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대부분 케이팝이나 춤 같은 요소를 섞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판소리를 깊이 있게 경험할 기회가 없죠. 물론 많은 케이팝 팬에게 맞춰서 조절하는 건 이해하지만, 프랑스만 봐도 판소리 향유층이 생겼어요. 자신의 문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문화 수준이 높은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데, 국악이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진 외국인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국악 공연을 할 때 조금 더 자신 있게 전통적인 국악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자로서 교수님께서 갖고 계신 연구 계획과 앞으로의 비전을 들려주세요.

국악인들이 SNS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해 국악이나 자기 활동을 어떻게 홍보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연구를 깊고 넓게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국에서 전통 음악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보여주는지와 비교하면서 책을 한 권 쓰고 싶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연구고, 발표했던 연구 주제인 국악과 젠더, 국악과 패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2018년 런던 킹스턴 공연



2015년 윤현궁 공연



2016년 런던대 공연

서울대인의 온전한 화합을 도모하다

서울대의 응원 문화를 정착시키다

서울대응원단(이하 응원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획으로 출범한 동아리다. 서울대만의 새로운 응원 문화를 창조해 서울대인의 화합을 도모하겠다는 목표 아래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교내에 응원 문화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응원단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홀연히 사라지곤 했다. 응원단을 향한 학내 구성원의 회의적인 시선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곳곳이 도전하며 노력해온 덕에 응원단의 인식은 제고되었고, 응원단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올해부터 어엿한 중앙동아리로 자리매김한 응원단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초반에는 안무 인원 6명으로 굉장히 규모가 작았어요. 1년에 2번씩 단원을 모집하면서 단체의 규모를 키웠고, 응원복 제작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며 발전시켜 나갔죠.” 응원단은 교내 행사인 축제와 새내기 OT, 예술주간을 비롯해 매 학기 정기공연 등의 행사에 참여한다. “응원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연 중 하나가 새내기 OT 공연이에요. 학교에 막 입학해서 학교의 자부심이 가득한 신입생에게 서울대인만 느낄 수 있는 연대감을 형성해주려고 노력하죠.” 학교의 중요한 행사 등에서 응원단이기에 무대 퀄리티는 항상 중요하다. “활동하면서 학내 구성원의 인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요. 응원단이 서울대를 대표한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고, 완성도를 위한 연습은 당연한 거죠. 주 3회 고정 연습 시간을 두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중앙동아리
서울대 응원단
이진서·진희주

우리의 청춘, 서울대에서 피어나

응원단의 완성도 높은 무대가 궁금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응원곡은 〈관악을 보게 하라〉, 〈그대에게〉. “두 곡에 관객과 함께하는 안무와 구호가 있는데요. 새내기 OT에서 〈관악을 보게 하라〉 무대를 하면서 천 명에 육박하는 새내기와 ‘우리의 발자취는 조국의 오늘을, 우리의 발걸음은 조국의 내일을’이라는 응원 구호를 주고받으면서 응원단이 많은 이들의 화합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걸 체감했어요. 엄청난 자부심과 희열을 느꼈죠.”

한 학기에 많으면 6~7개의 무대에 서는 응원단에게도 올해는 어려움이 많았다. 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함께 연습하는 일도 어려워진 것.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SNS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느껴서 영상팀을 갖추고 전문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해요. 또, 학생이 원하면 언제든지 무대에 설 수 있게 안정적인 공연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대인을 대표해 화합을 도모한다는 응원단의 신념이 단원들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5년간 늘 그러했듯, 응원단은 다시 오를 무대를 기다리며 서울대인의 화합을 위한 응원을 준비한다.



진희주(지리학과 19), 이진서(기계항공공학부 19)



중앙동아리
서울대 응원단



시흥캠퍼스본부 전략기획실·종합행정실

최재영, 박한진, 이용선, 김성원

박희수, 조재민, 이보람

서울대학교의 미래를 꿈꾸다

시흥캠퍼스, 도전 정신이 깃들다

서울대학교의 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2007년, 시흥시에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시흥캠퍼스를 조성하는 시흥캠퍼스 추진단은 2017년 스마트캠퍼스 선포식 이후로 2019년까지 주거 시설인 교직원 및 대학원생 주택, 교육협력동, 미래모빌리티 연구동, 산학협력동, 지능형 무인이동체 연구동 착공과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지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아무것도 없이 황량했던 20만여 평의 배곧 부지에 시흥캠퍼스의 6가지 도전적인 비전이 깃들기 시작한 것. “시흥캠퍼스의 6대 비전인 스마트, 사회공헌, 기초과학육성, 융복합연구, 평화통일, 행복캠퍼스 중에서 특히, 스마트 캠퍼스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시흥캠퍼스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과 미래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개인적으로는 행복캠퍼스가 제일 좋은데요, 시흥캠퍼스의 좋은 환경에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며 학생들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행복하게 나가길 바랍니다.”

시흥캠퍼스 추진단은 추진본부를 거쳐 올해 3월, 시흥캠퍼스본부 전략기획실·종합행정실로 개편됐다. “큰 성과 중 하나가 본부 행정조직인 시흥캠퍼스본부 전략기획실·종합행정실과 본부 주관 연구소인 미래혁신연구원을 신설한 것입니다. 기관 신설까지 많은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0년 11월, 그간 쉽 없이 달려온 노력 덕분에 교육협력동, 4개 동으로 구성된 교직원 및 대학원생 주택, 미래모빌리티 연구동, 무인이동체 연구동이 완공되며 1단계 준공식이 가능해졌다. “1단계 준공식을 하면서 시흥캠퍼스를 홍보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준공식 개최가 어려워져서 아쉽습니다. 시흥캠퍼스와 시흥캠퍼스에서 하는 일을 잘 모르시는 학내 구성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시
흥
캠
퍼스
본
부
전
략
기
획
실
·
종
합
행
정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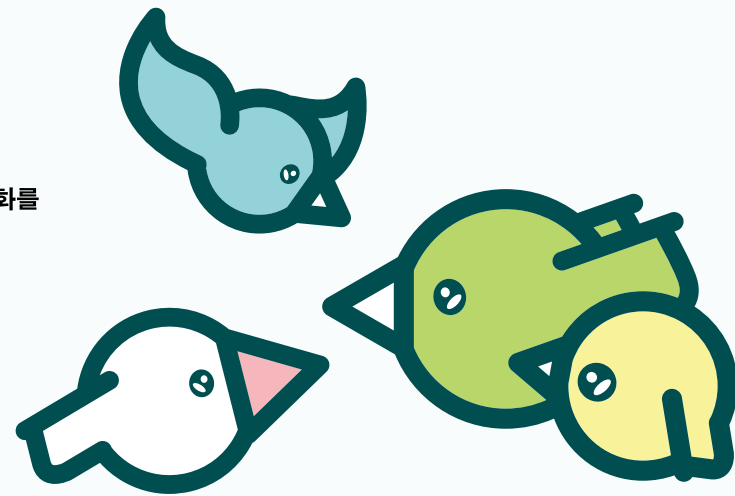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한다는 마음

최근 몇 년간 기념비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시흥캠퍼스본부 전략기획실·종합행정실에서도 쉬운 일은 하나 없었다. 기존에 경험했던 행정과는 업무의 결이 달랐기 때문이다. “정세와 정책 방향을 헤아리며 캠퍼스를 조성해야 했기에 버거울 때도 많았습니다.” 경자구역을 시흥캠퍼스로 지정하는 데도 굉장한 노력이 들었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흥시와 서울대학교가 고군분투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결과였다. “경자구역은 외국계 기업의 재산세와 법인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계 연구소와 대학, 기업과 협업할 때 좋겠지요.” 시흥캠퍼스본부 전략기획실·종합행정실은 경자구역 유치 외에도 산학협력기업을 입주 시키고자 직접 발로 뛰며 스마트 시티 구축과 자율주행 관련 기업 10곳의 입주를 성사시키면서 스마트 캠퍼스로의 입지를 다지기도 했다.

교직원과 학생의 편의시설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난생처음 아파트를 공부하며 교직원 및 대학원생 주택의 모집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고, 홈페이지에 ‘시흥캠퍼스에 바란다’는 코너를 개설해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교통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불편한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광역버스 신설을 위해 노력했고, 2019년 11월 서울대입구역에서 시흥캠퍼스를 이동하는 광역버스 3500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1단계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조성 사업 추진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시흥캠퍼스본부 전략기획실·종합행정실. “앞으로도 도전 의식이 있는 구성원분들이 시흥캠퍼스에서 모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양하고 도전적인 연구가 실현될 수 있는 시흥캠퍼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제든 놀러 오세요.”

그때와 지금, 그리고 달라질 수강신청

성공적인 한 학기를 맞이하기 위한 초석인 수강신청. 한 학기의 농사는 빠른 클릭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강신청 환경 개선에 애쓴 교직원들의 노력이 닿아 변화를 거듭하며 더 편리해지는 수강신청의 풍경을 살펴봤다.



수강신청을 하려면 밤을 새워야 했었지

성공적인 수강신청은 좋은 사향의 컴퓨터와 빠른 인터넷, 그리고 광클을 겸허히 감당할 손가락에 달렸어요. 수강신청 당일에는 학생들이 수강신청이 열리는 시간을 기다리며 피시방 컴퓨터 앞에 앉아있곤 했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수강신청을 위해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요. 흔히 학교 안 컴퓨터에서 수강신청을 하면 더 빠르다는 속설도 있긴 하지만,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서 수강신청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998년에는 수강신청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졌어요. ‘선착순’이라는 제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선착순은 말 그대로 선착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전산원 앞에서 줄 서며 밤을 지새운 건데요. **인원이 제한된 고시 과목, 인기 과목 신청을 위해 수백 명의 학생이 수강신청 전날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룬 거죠.** 당시 서울대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과목은 모든 고시의 공통 출제 과목인 헌법과 평소 배우기 힘든 골프 같은 레저였대요. 지금도 그런가요? 기다리다 지쳐 시멘트 바닥을 침대 삼아 잠들거나 등나무 벤치에서 선잠을 청하는 모습은 그 시대의 익숙한 풍경이었대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온 버너에 라면을 끓여 먹거나 같은 과 친구를 만나면 카드놀이나 우유팩

차기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우유팩 차기가 뭐죠? 이렇게 서울대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위해 학교에서 밤을 새우며 장사진을 이루는 모습은 화제가 되며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대요.

하지만 수강신청을 하는 날은 비단 학생에게만 고단한 날은 아니었어요. **교직원 선생님들은 새벽 4시까지 출근해야 했는데, 무슨 사고가 날까 봐 늘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겨울에는 폭설이 내려 접촉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름에는 폭우로 잠긴 도림천을 거슬러 오기도 했대요. 어떤 선생님은 안전하게 학교 근처 여관방을 잡고 출근하기도 했다는데.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색 풍경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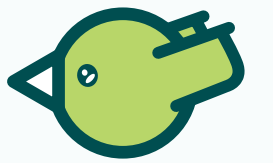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서울대(서울대)에서 태어난 스누새입니다. 스모양 부리가 달린

귀여운 o형 몸매가 매력. d자 날개로 캠퍼스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서울대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서울대 사람들의 이야기로 사랑받고 있는 스누새편지 모음은 bird.snu.ac.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계속된 수강신청 전쟁

2003년 처음 수강신청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지만, 수강신청을 위해 수천 명이 신청을 곤두세우는 건 똑같았어요. 지난 8월 13일 목요일 오전 6시 30분에 정보화본부를 찾아가 봤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정보화본부에는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긴장된 표정의 교직원 선생님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2020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대망의 첫날’이래요.

수강신청 한 달 전부터 학교는 TF팀을 가동해 수강신청에 필요한 모든 걸 점검한대요. 수강신청에 참여하는 4만6000명의 학생 명단과 전산 데이터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8,000개가 되는 모든 수업 정보를 함께 점검하는 거죠. 그 한 달간의 준비를 마치고 수강신청 당일 새벽부터 정보화본부 상황실에 모인 선생님들은 긴장하며 수강신청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황실에 있는 10개의 대형 모니터에는 서비스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50여 명의 직원 선생님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혹시나 있을 특이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해요!

수강신청 시간인 8시 30분이 가까워지자 공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1분 전입니다.” 드디어 8시 30분. 수많은 학생이 광클을 시작했고 서버에 순간적인 과부하가 걸렸지만, 큰 이상 없이 수강신청이 진행됐어요. 8시 40분, 벌써 9,400명의 학생이 4만5000건의 수업을 담았어요. 10분을 위해 한 달간 준비한 선생님들 정말 대단해요!

이제 ‘장바구니제’에 양보하세요

2020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을 마지막으로 2020년 10월 19일부터 **서울대에 새로운 수강신청 제도인 ‘장바구니제’가 도입됐어요.** 장바구니제는 수강신청 2일 차까지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장바구니에 담아 정원이 차지 않으면 확정하고, 정원이 초과한 수업은 4일 차에 장바구니에 수업을 담은 학생끼리 선착순 경쟁을 하게 되는 제도래요. 수강신청 제도가 장바구니제로 개편되면서 여러 편리한 기능이 신설됐는데요. 먼저 정원이 마감된 이력이 있는 교과목에 관한 취소여석이 신설됐어요. 정원이 마감된 강좌 중 수강신청 취소(삭제) 인원이 있는 경우 1일 3회 지정 시간에 맞추어 취소여석의 교과목 수강신청이 가능해요.

또 기존에 ‘수강신청정정요청’이라고 불리던 제도를 ‘정원 외 신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산화했어요. 학생이 정원 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저장 후 신청하면, 담당 선생님의 승인에 따라 수강신청이 확정된대요. 더욱 편리한 수강신청 시스템을 위해 반응형 웹을 도입하고, 모바일 등 각종 장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UI(사용자 환경)도 개편했어요. 게다가 mySNU 계정 로그인과 로그인 연장 기능을 신설해 앞으로는 더욱 편리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을 거래요! (짝짝) 그동안 선착순 수강신청으로 학생끼리 경쟁하며 힘들었던 문제가 해소될 것 같아서 스누새도 기뻐요.

예술이 흐르는 온택트 서울대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매년 개최되던 서울대학교의 다채로운 예술 행사가 모두 언택트(Untact)로 대체됐다. 언택트 세상에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만큼은 여전히 인택트(Intact)인 서울대 예술가들과 예술로 온택트(Ontact)된 학교 곳곳의 이야기.



비대면 시대로 인해
온라인에 최적화된
작품을 구상하며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할 수
있었고, 다른 분야의
작가와 협업하며 각자의
장점을 살린 다양성과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

서울대 최초의 온라인 패션쇼

2020 서울대 의류학과 패션쇼

2020년 10월 26일(월) 서울대 최초의 온라인 패션쇼, '茲緣 자연; 무성한 인연'이 열렸다. 이번 패션쇼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관람객에게 자연과의 공생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기 위해 인간과 자연의 무성한 인연을 뜻하는 '자연(茲緣)'이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자연(自然)과는 다른 무성한 자(茲), 인연(緣)의 한자어 결합으로 인간과 자연이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를 소주제로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소주제 별로 다른 원단과 재료를 사용해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재료를 깎아 뿔 모양을 만들어 날카롭고 뾰족한 빙하의 느낌을 내거나, 한지를 한 줄, 한 줄 접어 옷에 붙이며 넘실거리는 파도를 표현하기도 했다. 원단에 직접 패턴과 사진, 일러스트를 프린트하는 디자인도 함께 선보였다.

온라인 패션쇼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오프라인 쇼에서처럼 백스테이지에서 분주하게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되기에 디자이너가 직접 모델의 의상 착장을 도우며 관객에게 디자인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다. 또한, 패션쇼 리플릿 대신 유튜브 영상 '더 보기'에 주제 설명을 담아 유튜브 영상으로 쇼를 관람하는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가족과 지인이 함께 참여하는 오프라인 패션쇼의 현장감은 그리지만, 이번 2020 서울대 의류학과 패션쇼를 통해 의상을 매개로 코로나 시대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에너지

음악대학 비대면 음악회

서울대 음악대학에서도 화요음악회와 런치콘서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화요음악회는 서울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뿐 아니라 관악구민 등 교내외 모든 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예술 공연 행사로, 국내외 저명한 연주자의 연주를 들을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0년 2학기 화요음악회는 9월 22일 화요일을 시작으로 10월 6일, 11월 3일, 12월 1일 각각 오후 5시에 개최됐다. 특히 화요음악회 개최를 시작한 9월 22일 공연은 2020 서울대 예술주간과 연계되어 연주부터 녹음, 제작까지 모두 학생들의 손으로 이루어져 더욱 뜻깊었다.

런치콘서트는 음악대학에서 새롭게 기획한 음악회 시리즈로, 화요음악회와 마찬가지로 서울대 전체 구성원과 교외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프로그램이다. 런치콘서트는 음대 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세부 전공 학생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나볼 수 있게 기획되어 눈길을 끌었다. 10월 8일 목요일에 시작된 '런치콘서트'는 이름에 걸맞게 점심시간을 알리는 정오에 열렸다. 이후 10월 22일, 11월 12일, 11월 26일, 12월 3일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목요일 정오에 런치콘서트를 만나볼 수 있었다. 서울대 음악대학은 온고지신을 비롯해 루체 쿼텟, 렉스 콰르텟, 김연선, 불량 콰르텟 등 다양한 음악의 비대면 음악회를 통해 서울대 구성원에게 아름다운 선율이 주는 에너지를 전했다.



예술의 열정과 감동이 고스란히

2020 온라인 서울대 예술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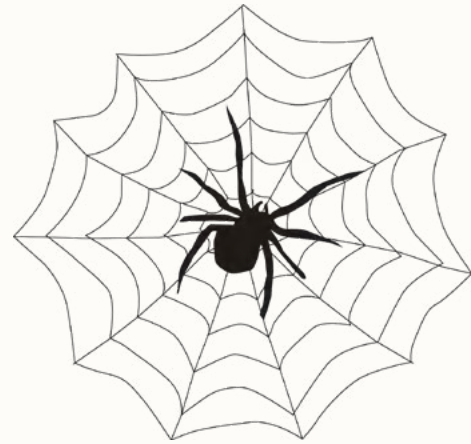
여섯 번째를 맞는 2020 서울대학교 예술주간(ArtSpace@SNU)이 9월 21일(월)부터 9월 25일(금)까지 온라인에서 개최됐다. 올해 서울대 예술주간은 매년 인문대학 어문학과에서 주최하던 '원어연극제'가 취소되고, 작년 69개 팀이 참여했던 것에 비해 35개 팀이 참여하는 등 작년보다 규모가 축소됐다. 하지만 축소된 규모에도 교내 예술인들의 창작 열정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음악 공연, 문학 낭송회, 동아리 공연, 무용 공연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가 사전 공지된 일정에 따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개됐고, 일부 공연은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며 관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관악과 연건 캠퍼스에서 진행했던 미술 전시회도 영상으로 대체됐다. 영상전시회에서는 오프라인 전시회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작가들의 구체적인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음악대학·미술대학·인문대학 학생들의 합작품인 개막 공연 'n개의 세계'도 인상적이었다. 각 단과대에 소속된 3명의 학생이 예술과 시대를 이야기한 공동 작업의 결과물로, 개인과 타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공연에 참여한 김종록 학생(국악과·18)은 "비대면 시대로 인해 온라인에 최적화된 작품을 구상하며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할 수 있었고, 다른 분야의 작가와 협업하며 각자의 장점을 살린 다양성과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라며 공연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2020 서울대학교 예술주간은 작년보다 축소된 규모와 온라인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진행됐지만, 예술인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관람객에게는 색다른 경험의 장을 제공해줬다. 온라인이기에 실현 가능했던 다양한 시도들로 풍성했던 2020 서울대학교 온라인 예술주간. 행사는 막이 내렸지만, 이번 예술주간에서 경험한 서울대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시도와 예술에 대한 열정은 앞으로의 예술주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자연 모사를 통한 거미줄 로봇 개발

선정윤 교수 연구팀은 거미줄의 특성인 신축성과 관성력에 주목한 거미줄 로봇을 개발했다. 개발된 거미줄 로봇은 거미줄과 같이 물체의 포획과 감지, 오염물 제거에 효과적이다. 이번 연구로 자연 모사를 통해 소프트 로봇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방법론이 제시되며, 소프트 로봇 연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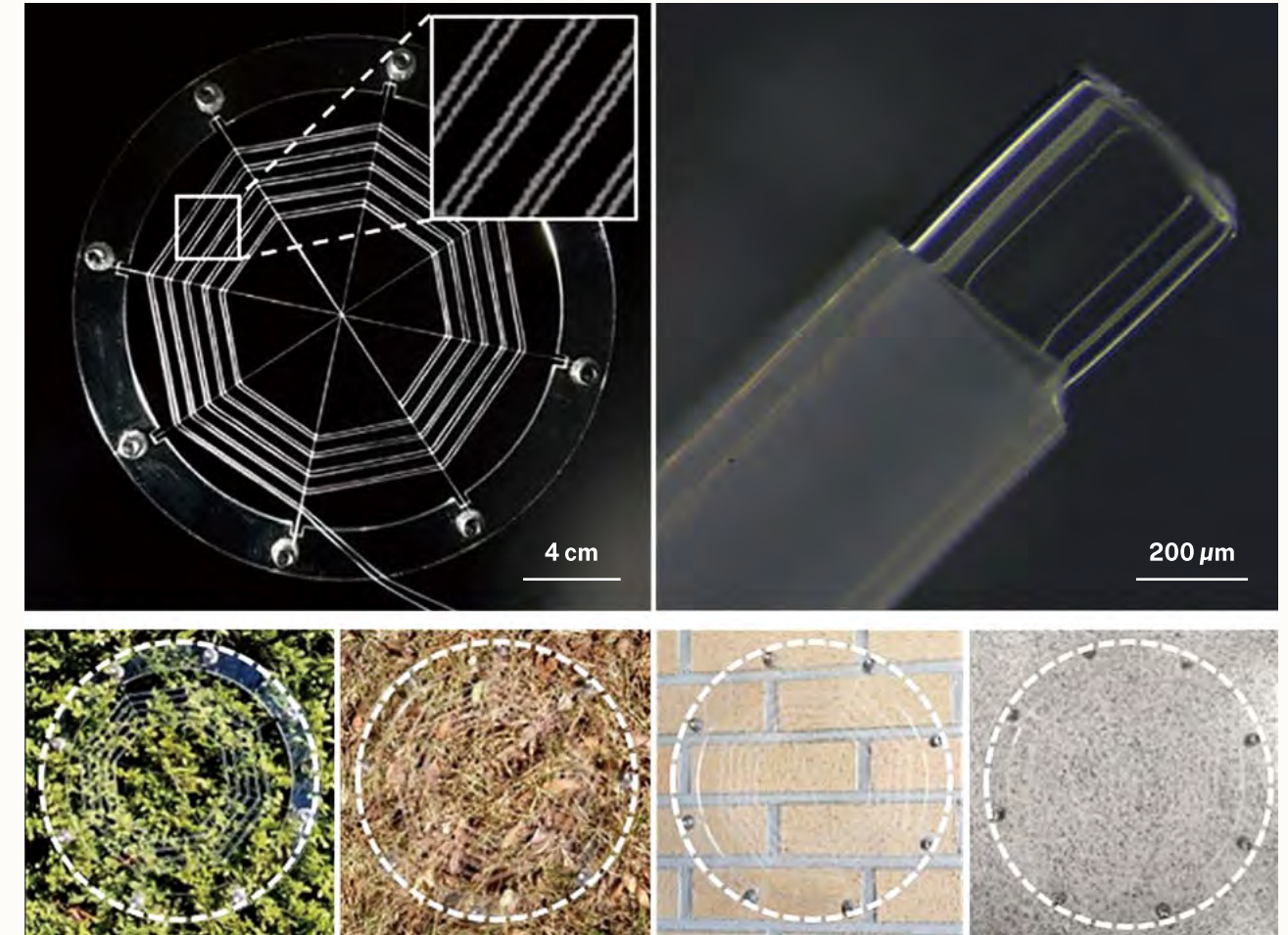


재료공학부 선정윤 교수(이영훈 박사과정, 송원준 박사과정)

부드러운 소재의 소프트 로봇은 높은 자유도와 적응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단단한 로봇이 적용되기 어려운 분야에 활약할 것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소프트 로봇이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몸체의 소프트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로봇 내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연에서는 다양한 생물들이 간단한 구조만으로도 상호보완적인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주성 거미는 점성이 있는 신축성의 거미줄을 이용하여 먹이를 포획한다. 그러나 거미줄의 강한 접착력은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거미는 거미줄의 포획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먹이를 감지하고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진화시켜왔다. 거미는 최소한의 거미줄을 이용해 먹이를 잡은 포획할 수 있는 그물을 만든 뒤 기다린다. 이후 먹이가 거미줄에 걸리면서 발생한 거미줄의 진동을 감지한 거미는 탈출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거미줄을 먹이에 감는다. 즉 거미의 먹이 감지 능력은 거미가 최소한의 거미줄만으로 그물을 칠 수 있게 해

주며, 이를 통해 오염되는 거미줄의 양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거미는 새충을 쏘듯 거미줄을 잡아당겼다 놓는 방식으로 거미줄에 붙어있는 오염물들을 날려버린다. 관성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오염된 거미줄의 포획 능력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

거미의 행동학적 특성에서 영감을 받아 서울대학교 선정윤 교수 연구팀(제1저자: 이영훈 연구원, 송원준 연구원)은 거미의 먹이 감지 및 포획, 그리고 오염물 제거 능력을 전기적인 방식으로 모사하는 거미줄 로봇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로봇은 신축성 전극 역할을 하는 선형의 이온 전도성 오가노젤 코어와 이를 감싸고 있는 신축성 절연체 역할의 실리콘 탄성체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거미줄 로봇에 직류 고전압을 인가해주면, 로봇 주위에는 강력한 전기장이 형성되며 주변 물체의 분극을 유도하게 된다. 이렇게 분극된 물체와 로봇 사이에는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거미줄 로봇은 금속, 폴리머, 세라믹



거미줄 로봇의 구조

등 다양한 종류의 물체를 전기적으로 포획할 수 있다. 또한 개발된 거미줄 로봇은 모든 구성 요소가 신축성 있는 소재로 구성되어 원래 길이의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축성을 바탕으로 자신보다 68배 더 무거운 물체를 포획하는 데 성공하였다. 거미줄 로봇은 정전기유도 현상으로 물체 표면의 정전하로부터 나오는 전기장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거미줄 로봇이 물체와의 상대적인 거리를 비접촉 방식으로 감지할 수 있게 해주며, 물체가 충분히 접근했을 때만 전기 포획 기능을 작동하여 불필요한 오염물이 포획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감지 능력을 바탕으로 거미줄 로봇은 감지 능력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포획력을 32.5배 높게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감지 능력에도 불구하고 거미줄 로봇이 오염되는 경우에는 거미줄 로봇에 교류 고전압을 인가하여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다. 인가된 교류 전압의 진동수가 로봇의 공명 진동수와 일치하게 되면 로봇은 초당 수백 번까지 빠르게 진동하며 표면의 오염물을 관성력을 이용해 튕겨낼 수 있으며, 이러한 오

염물 제거 능력을 통해 오염물에 의해 감소한 포획력을 98.7% 이상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거미줄 로봇은 유전 탄성체로 코팅된 신축성의 유연 전극 한 쌍만으로도 물체의 포획과 감지, 그리고 오염물 제거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은 최근 소프트 로봇 분야에서 차세대 인공 근육과 전자 피부로 주목받고 있는 유전 탄성체 액추에이터와 축전 촉각 센서, 그리고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비정형화된 물체를 잡을 수 있는 소프트 그리퍼 등에 주요한 설계 변경 없이도 추가적인 기능성을 부여해 활용 범위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자연 모사를 통해 다양한 상호보완적인 구성요소들을 간단한 구조로 결합시킨 소프트 로봇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소프트 로봇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74주년 개교기념식 개최

지난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74주년 개교기념식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보직자, 학(원)장, 각 수상자 등으로 인원을 제한했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온라인(유튜브)으로도 실시간 생중계된 이번 개교기념식은 오세정 총장의 개교기념사, ‘제30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과 장기근속한 교수 및 직원, 봉사우수학생(관악봉사상,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표창장 수여, 총동창회장의 축사로 꾸며졌다. 오 총장은 개교기념사를 통해 서울대학교 74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서울대학교에 지금의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늘 그러했듯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새 시대

를 맞이할 것이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 서울대학교를 서울대학교 구성원과 국민, 세계가 존경하는 대학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을 선포하며 서울대 구성원 모두를 독려했다. 이어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척하며 우리나라를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선도 국가로 이끈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전자공학과 졸업)과 장학 사업 및 국제 공헌을 통해 서울대학교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였다고 평가받는 성기학 영원무역 대표이사 회장(무역학과 졸업) 등이 선정되며 개교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GBST)-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업무 협약식 개최

2020년 11월 23일(월)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GBST)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간의 업무 협약 체결 및 공동 세미나가 개최됐다.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체결식에서는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원장 이인복)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조창희)간의 ‘국제적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및 개발협력 분야 상호 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연구사업 개발과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고, 국내외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국제개발협력 및 지원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인력 및 정보 교류, 연구시설 상호 이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후 진행된 공동 세미나에서는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의 강상기 기획실장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선인경 개발협력단장의 발표가 잇따랐다. 강상기 기획실장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의 스마트 웰니스 신산업 육성’을 주제로 평창캠퍼스가 그린바이오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웰니스 산업의 바이오 첨단 연구 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전했다. 선인경 개발협력단장은 국제협력의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국제기술혁신 협력활동과 성과’를 설명했다. 이인복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그린바이오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향후 긴밀한 상호교류로 공동 연구사업을 발굴하고 국제협력 사업에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발표

서울대학교의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이 발표됐다. 서울대학교는 학교교육에 중심을 둔 대학입학전형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되, 2022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도입한 ‘교과이수 가산점’을 개편하기로 했다. 2023학년도 정시모집부터는 학생의 교과이수 충실도 및 교과성취도의 우수성을 본격적인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교과평가’를 실시한다. 교과평가는 학생의 학업적 노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충실히 공부한 내용을 대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교과평가는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고교 현장에 정착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 202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 지역

균형전형이 신설된다. 최근 몇 년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나타난 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선발하기 위한 서울대의 노력이다. 본래 지역균형전형의 취지에 맞게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균형적으로 선발될 수 있게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발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및 전형별 전형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은 2021년 4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새롭게 탄생한 NH농협두레문예관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이 서울대학교 NH농협두레문예관(67동) 환경개선사업 및 학생지원 기금으로 6억 원을 쾌척했다. 이 기금으로 환경개선공사를 거친 ‘두레문예관’은 최적의 공연 시설을 갖춘 ‘NH농협두레문예관’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기금 외에도 NH농협은행 지난 50여 년간 학교 발전을 위해 꾸준히 발전기금을 기부해왔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2020년 11월 30일(월) 관악캠퍼스에서 NH농협은행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세정 총장을 비롯해 NH농협은행 손병환 은행장, 홍기현 교육부총장, 정효지 학생처장, 채준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NH농협은행은 서울대와 함께해온 52년을 넘어 앞으로 100년의 동행을 약속하며, 서울대 학생들이 꿈과 열정을 자유롭게 펼치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NH농협은행이 함께하겠다는 진심을 전했다. 오 총장 또한 NH농협은행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NH농협두레문예관에서 학생들이 문화·예술의 열정을 불태우며 지·덕·체를 겸비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NH농협두레문예관은 로비 일부를 전면 거울로 교체하고 바닥에 탄성매트를 깔아 춤 연습에 적합하도록 세심하게 공간을 개선했다. 한층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춘 NH농협두레문예관은 앞으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각종 공연 등을 위해 재능과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고 꽃 피우는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부는 기록이다

발전기금 30주년 특집 2

서울대학교의 공식모금기관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서울대학교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써온 서울대학교발전기금, 그 30년 기록의 발자취를 하나씩 살펴본다.

발전기금 30년, 자랑스러운 전통이 깃들다

지난 30년간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에 조성된 총 모금액은 약 1조8,586억 원(납입 1조6,663억 원). 지금까지 총 4만여 명의 후원자가 18만6,623건에 달하는 기부에 약정했다. 1990년 142건을 시작으로 1991년~2000년 2,263건, 2001년~2010년 2,645건, 2011년~2019년에는 21,869건으로 발전기금의 기부건수와 모금액은 3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더욱이 2011년~2019년에는 눈에 띄게 큰 폭으로 증가한 금액이 조성되며, 출범 30년 만에 기부건수가 약 150배 가까이 증가하는 수치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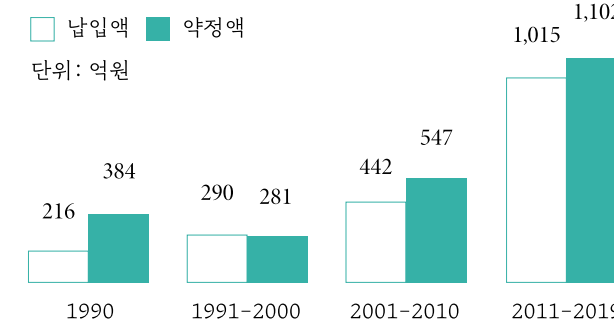
기금용도별 모금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의 총 누적액 1조6,663억 원 중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학술 연구 사업에 사용되는 학술연구기금에 1조 원이 넘는 가장 큰 금액이 조성되며,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서울대의 지속적인 비전에 후원자 또한 깊게 공감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시설기금 4,548억 원을 비롯해 기금교수기금, 도서 기금, 대학문화 등 서울대의 여러 다양한 사업에 기금이 고르게 조성되며 서울대를 향한 후원자의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주된 기부 형태인 현금을 비롯해 건물기부채납, 부동산, 유증 등 후원자의 소중한 자산이 다양한 형태로 기부되었다.

따뜻한 지성의 전당에서 얻은 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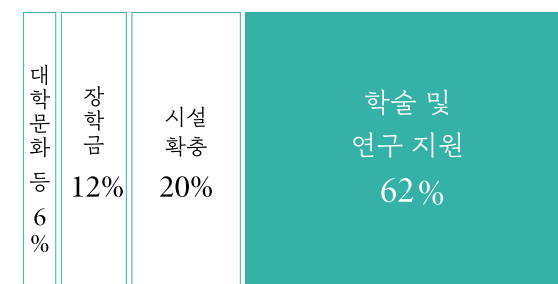
기금 모금에 있어 30년간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려온 발전기금은 첫째 85억 원이었던 재단의 재산을 30년 후 66배 증가시키며 5,669억 원으로 재산 규모가 성장하였다. 그 결실의 바탕에는 서울대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후원자가 있었다. 30년간 동문 후원 94,455건과 교수, 교직원, 재학생에 이르기까지 서울대 구성원의 후원 61,150건, 학부모 후원 11,706건, 법인, 비동문의 19,312건이라는 소중한 후원이 모여 발전기금이 조성됐다. 발전기금은 서울대의 내부 구성원을 주축으로 조성되었지만, 서울대학교의 비전에 공감하는 다양한 교외 분들의 후원도 잇따랐다.

2019년 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 전체 예산의 약 20%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했다. 첫째인 1990년 54억 원을 지원했던 것을 시작으로 30년 후인 2020년에는 2,803억 원을 지원하며 약 50배가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큰 성취를 이루었다. 지원금은 후원자들의 기부 용도에 맞추어 학술 및 연구 지원, 장학금, 시설 확충 등에 집행됐다. 발전기금은 놀라운 결실을 얻은 지난 30년을 발돋움 삼아 서울대학교가 미래를 개척하는 공동체이자 앞으로도 따뜻한 지성의 전당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도록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10년 주기 평균 모금액



집행 분포



개인의 행복이 모이면 선한 사회가 된다

최경준 동문 (법무법인 양현 대표변호사, 법학 79입)

한국 로펌의 효시, 김장리를 만나다

1958년에 설립된 김장리(Kim Chang & Lee) 로펌은 국내 최초 국제 거래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김홍한 변호사와 그의 장모이자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 박사가 함께 설립했다. 당시 변호사 업무의 대부분은 송무 사건이었지만, 김장리 로펌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업 자문을 시작했다. 기업 자문 분야를 일찍 개척한 덕분에 외자 유치가 본격화되던 1961년, 김장리 로펌에는 외국기업의 자문 요청이 쇄도했다. 김 변호사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겔프오일사, 웨스팅하우스, 코카콜라, IBM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과 일하며 한국 로펌을 태동시켰다. 그의 사위인 최경준 변호사는 장인의 바통을 이어받아 외국인 투자 및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영역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이며, 잠시 흔들렸던 김장리 로펌을 다시 재기시켰다.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4기 수석 졸업, 뉴욕대학교 법과대학 최우등 졸업, 미국 5개 주 변호사 자격 취득 등,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는 1979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해 4년, 사법연수원 2년을 거쳐 판사에 임관됐지만, 임관 후 휴직계를 제출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법조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던 생경한 행보였다. “효율적인 한국의 주입식 교육을 떠올리면서 미국 법과대학의 석사 과정 1년을 밟기로 했어요. 그런데 미국식 법학 공부는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딱 1년만 더 하려고 했는데, 그 차이에 매료되어 6년을 보냈습니다. 그 경험이 제 변호사 생활에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서울대에 아로새겨지는 김장리의 정신

지난 5월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Kim Chang & Lee 기금’ 5억 원을 쾌척하며 후학 양성에 애정을 드러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투자하는 일이 미래 대한민국 법조계를 위한 일이라 생각해왔습니다. 법률 이론과 판례 위주로 가르치기보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체득하도록 교육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다목적홀 리모델링과 Next Decade 사업에 쓰이고, 리모델링된 다목적홀은 ‘김장리 홀’이라 명명된다. “최초로 기업 법무와 국제 업무를 개척하신 김홍한 변호사와 남녀평등 실현에 노력하신 이태영 박사님, 두 분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기회가 주어져 영광입니다. 더불어 서울법대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펌에서 많은 후배 변호사를 이끄는 만큼,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의 당부가 있는지 궁금했다. “막 변호사를 시작한 후배들은 앞으로 30년~40년은 계속하게 될 겁니다. 최소 5년, 길게는 10년 동안 가능하면 다양한 법 분야의 지식과 바탕을 넓게 쌓는 제너럴리스트가 되세요. 전문성은 그 이후로 쌓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의 기준을 높이는 연습을 하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워도 타협하지 않고 성과의 기준을 높이다 보면 몸에 체득되어 나중엔 높은 기준에 자연히 맞춰지게 됩니다.” 최 변호사는 올해 입학해 혼란한 시기를 겪는 서울대학교 신입생에게 자아 성찰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자아 성찰을 통해 각자 자신의 행복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인의 행복이 모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토록 충만한 계절에

장학금 수기공모전 응모작 가운데 발췌

가을날 형형색색 아름답게 물든 낙엽들. 겨울이 오면 그 빛깔도 서서히 사라질 테지만, 우리는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낙엽은 때가 되면 다시 아름답게 빛을 발할 테니까요. 우리의 삶이 장학금으로 물들어 충만한 시간, 그 눈이 부시게 빛나는 계절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늦었지만,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학부 4년 동안 모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학기마다 장학금을 찾아다닐 때도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
다. 학부 4년 동안 확정된 장학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안정감 있는 학부 시절을 보낸 까닭에 남들보다 쉽게 대학원 진학을 마음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
다. 보장된 장학금도 없이 논문 관련 사례비에 실험사례비, 생활비까지 돈 들 일이 무시무시하게 많았습니다.
학부 졸업 후 돈을 버는 직장인 친구를 보면서 아직도 부모님께 도움받아서 공부하고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던 2018년 2학기, 학과로부터 가뭄 속 단비 같은 매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국어교육과 2

학기 운당 장학금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장학금 수여 소식에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운당 장학금은 앞으로 학문적 기여가 기대되는 학생에게 수여되는 것이기에 제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학기를 다니며 장학금을 주신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문을 갈까 고민했지만, 부끄럽고 용기가 없어 차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후회가 됩니다. 대학 시절 감사한 줄도 모르고 받았던 장학금이었지만, 이제는 장학금의 소중하고 깊은 뜻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용기 내 전하고 싶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학생을 위해 내어놓은 귀한 장학금을 통해 열심히 공부할 힘을 얻게 되었노라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글. 최수완 국어교육과



우리에게

최고의 혼수

저희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의 장학생으로 처음 만나 서로의 멘토와 멘티가 되었고, 감사하게도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서프라이즈 프러포즈까지 무사히 마친 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에도 나오는 혼수 문제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혼수에 돈을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양가 부모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에 조심스러웠습니
다. 고민 끝에 아내에게 혼수 대신 모교에 기부하는 것을 제안했고, 아내는 흔쾌히 동의해주었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장학금을 받았고, 장학금으로 지금의 소중한 인연도 얻게 되어 평소에도 종종 기부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걱정했던 양가 부모님도 저희의 생각을 존중해주셔서 마음 편히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여기저기 지출이 많아져서 큰 금액을 기부할 수는 없었지만, 작게나마 기부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들으니 역시나 예상처럼 저희 어머니 주변 분들이 혼수에 대해 많이 물어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혼수 대신에 모교에 기부했어.”라는 저희 어머니 대답에 주변 분들은 놀라며 더 질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어머니는 웃으며 전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혼수 대신 기부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또 기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이 마음을 이어나가려 합니다.

글. 안태진 경영학과

꿈꾸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 꿈은 한국인의 건강 수명 연장과 사회 소수자들이 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의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가슴 속에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종류는 다양할 테지만 장학금은 제게 경제적 자유를 주었고, 그 시간에 의학 공부를 맘껏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 지원이 없었다면, 꿈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적절한 시기를 놓쳤을 것입니다.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여러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고, 꿈을 이루기까지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감사한 마음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학생 때 할 수 있는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해 제가 할 수 있는 봉사의 범위가 넓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돕는 의학자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까지 제가 받기만 했던 도움을 꿈을 품은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생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들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도록, 꿈꾸는 기회를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글. 육유정 의학과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소식

제4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공모전

“ 누군가의 삶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기부. ”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따뜻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서울대학교발전기금과 대학신문사의 공동 주최로 제4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공모전이 열렸다.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공모전은 2017년부터 발전기금에서 매년 주최해온 행사로, 올해로 4번째를 맞이했다. 학생, 동문, 교직원, 기부자 등 서울대 구성원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공평한 수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회~3회 수상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공모전의 수상자 발표는 2021년 2월 5일(금)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협약식 및 감사패 전달식

2020.08.10	김일순 도부라이프텍 회장 보건대학원 및 농업생명과학대학 발전기금 12억 원 약정
2020.09.07	조경일(약학 64입) 하나제약 회장 약학대학 미래인재 하나22 장학금 10억 원 약정
2020.09.16	김양식 인도박물관 관장 규장각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선생 학술기금 5억 원 출연
2020.09.16	이성계(농화학과 79입) 강선영 부부 농생대 성선(成善) 장학금 1억 원 출연
2020.09.21	김용구(외교학 56입)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사회대 김용구 외교학 전공 발전기금 1억 원 출연

2020.09.21	김낙두(약학 58입) 약학대학 명예교수 약대 20동 건축 및 시설확충기금 1억 원 출연
2020.09.24	박용옥(사학 55입) 동문 사범대 차경수 명예교수 장학기금 1억 원 출연
2020.10.07	박민철(화학공학 48입) 동문 박민철 데이터사이언스 챌린지 장학금 1억 원 출연
2020.10.07	故 황재철(상학 59입) 상과대학 동문 유가족 경영대 및 경제학과 황재철 장학기금 약 7억 원 출연
2020.10.25	PPS(대표이사 오승호) 농생대 PPS장학 및 연구협력기금 2억5천만 원 약정

SNU President’s Honor Club · 100억 원 이상 출연

김정식 전자공학과 48입	정석규 화학공학과 48입	유회진 기계설계학과 78입	이용희 태광사 회장	윤대섭 농공학과 49입
삼성	관정이종환교육재단	SK	LG	한화
NH농협은행	한국전력공사	웅진	포스코	KT
영원무역	신한금융	현대자동차	우리금융	부영
롯데장학재단				

50억 원 이상 출연

조천식 정치학과 45입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 관악회	미래국제재단	현대	풍산
메가스터디	SK하이닉스	태영	동진세미켐	두산
금호아시아나	CJ	IBK기업은행	대림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
스펙오 · 삼익악기	한진	SPC		

SNU Gold Honor Club · 10억 원 이상 출연

정영호 생물학과 47입 · 박양숙 손동준 전자공학과 59입 원재연 경영학과 82입 전은기 · 김은희 이순자 불어불문학과 57입 윤전수 · 이삼락 민계식 조선항공학과 61입 윤종용 전자공학과 62입 민선식 경제학과 78입 이현수 농화학과 60입 하나금융지주 동양 하나제약 미래에셋대우 사회과학정보화교육연구 신풍제약 한국수력원자력 일주학술문화재단 대우인터내셔널 크로바상사주식회사	홍성대 수학과 57입 신창재 의학과 72입 박영희 수학교육과 54입 박병준 섬유공학과 52입 · 홍정희 김명희 기악과 91입 김형천의 모 · 신정희 차상균 전기공학과 76입 정운환 임학과 56입 백형익 · 유근순 박정혜 로이드선급협회 아시아 현대산업개발 KB금융지주 현대차 정몽구 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현승교육문화재단 쌍용양회공업 방일영문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단암장학재단	김석수 자원공학과 73입 변무관 김연혁 히로세코리아 감사 양두석 독어독문학과 69입 박상운 이준용 경제학과 56입 곽노섭 수학과 49입 권오현 전기공학과 71입 양윤홍 전자공학과 63입 대우 용운장학회 대우조선해양 대성 네이버 천재교육 신라문화장학재단 이연제약 세진에프알에스 천만장학회 STX	이기영 前 의대 교수 최창영 금속공학과 64입 유태웅 토목공학과 50입 곽영필 토목공학과 56입 김윤식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 가정혜 백추현 신승일 화학과 57입 강옥채 이필남 카길애그리퓨리나 동원 형애장학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현대중공업 TOYOTA MOTOR CORP. 코스맥스 환인제약주식회사 DB김준기문화재단 농심	김철 · 이옥자 주중광 · 허지영 약학대학 60입 · 화학과 66입 서정선 의학과 70입 손장순 불어불문학과 54입 박완서의 상속인 호원숙, 호원순, 호원경, 호원균 이효상 · 이수옥 물리학과 66입 · 농화학과 74졸 정덕균 전자공학과 77입 김정식 건축학과 54입 정혁진 기계설계학과 73입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송원김영환장학재단 풍림무악 일진 녹십자 생명보험협회 진양제약 서울장학재단 한국프티벨 무한투자
--	---	--	--	--

*금액 순

기
금
출
연
자
여
러
분
의
후
원
에
감
사
드
립
니
다

SNU Honor Club — 1억 원 이상 출연

강경선 (수의학과 82입)
강대희 (의학과 81입)
강신자 (간호학과 59입)
광관선 (토목공학과 57입) · 양남주
고광우 (행정학과 53입)
고광호 (약학과 65입)
고운숙 (약학과 60입)
고운석 (물리학과 47입)
고재광 (지구과학교육과 동문의 부)
고정택 (외교학과 62입)
고주 노홍희 (환경대학원 초대원장)
故 광명덕 변호사 유가족 (한자영 · 광성현 · 광성희)
광성현 (前 글로벌리더십센터장)
곽수근 (경영학과 73입)
구범진 (동양사학과 87입)
故 구영록 교수 유가족
구영배 (자원공학과 85입)
구의일 (경제학과 61입)
구인환 (국어교육과 50입)
구재서
권빈 (식품영양학과 00입)
권세일 (화학부 동문의 부)
권숙일 (물리천문학부 54입)
권영대 (약학과 55입)
권영덕 (전기공학과 54입)
권오현 (전기공학과 71입)
권옥현 (전기공학과 62입)
급장태 (종교학과 62입)
김건식 (법학과 73입)
김경국 (수의학과 86입)
김경환 (법학과 62입)
김경환 (외교학과 48입)
김광일 (경영학과 84입)
김구 (정치학과 58입)
김금순 (간호학과 68입)
김기봉 · 신경은 (기계공학과 63입 · 화학과 65입)
김기태 (의학과 58출)
김낙두 (약학과 53입)
김난도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김대욱 (조선공학과 76입)
김동길 (화학교육과 57입)
김동준 · 이유미 (故 최응환의 가족)
김동훈 (화학과 48입) 외 故오정우 교수 가족
김두철 (전자공학과 66입)
김만국 (약학과 47입)
김병기 (가나아트센터 화백)
김병중 (회화과 74입)
김상현 (사법학과 82입)
김상현 (영어영문학과 · 기계공학공학부 동문의 부)
김선동 (화학공학과 59입)
김선화(장자) (국악과 60입)
김성배 (영어영문학과 63입)
김성애 (한국글머(주) 연구위원)
김수이 (경제학부 92입)
김수호 · 박경희 (금속공학과 70입 · 간호학과 71입)
김순교 (의학과 60입)
김신원 (응용화학과 64입)
김양곤 (IFP, 미래지도자인문학과정 2기)
김여순 (생물교육과 50입)
김연택 (경제학과 故 태성 교수 의 부)
김연호 (화학공학과 71입)
김영경 (기계공학과 52입) · 김천순
김영구 (치의학과 71입)
김영석 (3 Plus Logistics 회장)
김영수 (법학과 67입)
김영수 (치과대학 명예교수)
김영숙 (기악과 48입)
김영선 (불어불문학과 故 오현우 교수의 부인)
김영엽
김영운 (토목공학과 62입)
김용구 (외교학과 56입)
김용복 (농업교육과 동문의 부)
김용재 (외과대학 60입)
김용철 (치위학과 55입)
김윤종 (약학과 64입)
김은경 (서어서문학과 교수)
김의신 (의학과 60입)
김의영 (경제학과 54입)
故 김민재 · 故 최성순 가족
김재식 (사회학과 49입) · 이영은
김정기 (약학대학 69입)
김정희 (간호학과 52입)
김종원 (기계공학과 74입)
김종일 (제어계측공학과 79입)
김진수 (화학부 83입)
김진향
김진희 (약학대학 55입)
김천홍
김철수 (법과대학 52입)

김철호 (외교학과 70입)
김춘길 (화학생물공학부 58입)
김태구 · 김해욱 (무역학과 59입 · ASP 3기)
김태우 (자원공학과 70입)
김택수 (법학과 48입)
김하석 · 김영종 (화학과 63입 · 약학과 64입)
김하자 (서양학과 故 하동철 교수의 부인)
김학봉 (한영요업 회장)
김현 (외과대학 60입)
김현희 (간호학과 59입)
김형주 (전자계산기공학과 78입)
김혜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희백 (생물교육과 75입)
김희천 (과학교육과 77입)
나용인
나정환 (화학교육과 54입)
남윤자 (의류학과 77입)
남정현 (건축학과 57입)
노명호 (토목공학과 61입)
노태원 (물리학과 76입)
류우종 (중어중문학과 53입)
미국철 (공업교육과 68입)
마드리실내악단 (단장 이순자)
마인경 (지리학과 56입)
문학익 (회화과 49입)
문효숙 (조소과 92입)
문희성 · 박종식 (전기공학과 53입 · 가정교육과 54입)
민현식 (국어교육과 73입)
박대근 (보건대학원 63입)
박맹호 (불어불문학과 52입)
박민식 · 박금옥 (수의과대학 65입 · 체육교육과 63입)
박민철 (화학공학과 48입)
박병주 (덕산스테이트 회장)
박봉균 (수의학과 76입)
박숙희 (지리학과 60입)
박영순 (간호학과 65입)
박영준 (전기공학과 71입)
박용욱 (사학과 55입)
박윤현 (교육행정학과 53입)
박용호 (수의학과 74입)
차麟子 (가정관리과 82입) · 하상예 · 박일숙 · 박순영 · 박노홍
박중근 (전기공학과 69입)
박충수 (수의학과 58입)
박종오 (영어영문학과 65입)
박종호 (제약학과 67입)
박준 (법학과 73입)
故 박진환 (농경제학과 48입)
박태교 (화학부 79입)
박태우 (건축학과 64입)
박태진 (독어독문학과 80입)
박한재 (동양사학과 69입)
배옥자 (성심가정의학과의원 원장)
백종철 (농공학과 54입)
법대 48회 졸업생
변대규 (제어계측공학과 79입)
변성운 (경제학과 91입)
변주선 (영어교육과 60입)
서문자 (간호학과 63입)
서용선 (미술대학 명예교수)
서정우 (더랩 대표)
서진 (간호학과 56입)
설학인 (섬유공학과 53입)
성낙인 (제26대 총장)
손경식 (법학과 57입)
손원준 · 송은빈 (경영학과 96입 · 심리학과 99입)
손주은 (서양사학과 81입)
손창조 (사회학과 71입)
송두영 (GLP, 글로벌리더십과정 24기)
송명철 (전기공학과 62입)
송미순 (간호학과 70입)
송상용 (화학과 55입)
송상현 (법학과 59입)
송인철 (SPARC 14기)
송학린 (법학과 59입)
신수정 (기악과 59입)
신영길 (계산통계학과 78입)
신영주 (이남당 대표)
신옥진 (부산간학회장 대표)
신익현 (임학과 79입)
신정택 (최고경영자과정 48기)
신혜순 (가정학과 47입)
신효영 · 신승연 (故 신광현 교수의 가족)
신희원 (물리교육과 49입)
신희택 (법학과 71입)
심계진 (천마르크리트공업 대표이사)
심소일 (상학과 49입)
심영근 (농업경제학과 49입)
심재성 (前 성보산업 자문위원)
심창구 (제약학과 67입)

안영경 (前 핸드소프트 고문)
안인희 (법과대학 민경훈의 모)
안창엽 (AMP 68기)
양문근 (전자공학과 79입)
양천식
엄병윤 (외교학과 60입)
연정은 (공예과 84입)
오경민 (경제학과 67입) · 오선희 (독어독문학과 63입)
박종환의 배우자)
오세경 (약학과 61입)
오수익 (기계공학과 63입)
오승환 (의학과 56입)
오용호 · 오양호 (행정학과 69입 · 법과대학 80입)
오윤덕 (행정학과 61입)
오치근 (서양학과 76입)
옥선화 (가정학과 68입)
옥치준 가족 일동
우두현 (상학과 61입)
유형구 (영어영문학과 33입)
유동원 (공업화학과 94입) · 소영순 (영어교육과 교수)
유성숙 (고고미술사학과 故 김원용 교수의 부인)
유호선 (의류학과 70입)
윤계삼 (상학과 64입)
윤덕우 (경제학과 58입) · 최덕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윤석순 (수의학과 59입)
윤세익 (경제학과 57입) · 강애삼
윤어순
윤우석 (에너지자원공학과 63입)
윤홍식 · 최제영
이건우 (기계공학과 74입)
이경식 (불어불문학과 55입)
이경태 (경제학과 66입)
이광희 (지리학과 59입)
이교일 (기계공학과 60입) · 박명진(불어불문학과 65입)
이규철 (물리학과 55입)
이금기 (약학과 55입)
이기원 (식품공학과 93입)
이기춘 (가정교육과 61입)
이내진 (경제학과 55입) · 이홍자 (약학과 63입)
이만택 (의과대학 52입)
이명숙 (치과대학 62입)
이명원 (철학과 60입) · 김귀현 (기악과 69입)
이문한 (수의학과 66입)
이병준 (경제학과 55입)
이석 (기계공학과 80입)
이상재 (농화학과 79입) · 강성영
이상규 (사학과 65입)
이성형 (정치학과 82입)
이순원 (가정교육과 54입)
이순형 (가정관리학과 70입)
이신두 (물리학과 76입)
이영희 (김태원의 모)
이예식 (약학과 46입)
이용한 (농업교육과 63입)
이용한 (전기공학과 73입)
이우영 (법과대학 94입)
이원범 (AMP 6기)
이윤경 (간호학과 65입)
이운방 (약학과 55입)
이문록 (간호학과 59입)
이익찬 (경영학과 86입) · 이병서 (경영학과 66입)
이장무 (제24대 총장)
이재승 (원자핵공학과 59입)
이정섭
이정섭 (종교학과 04입)
이종덕 (물리학과 62입)
이지형 (법과대학 85입)
이찬승 (수학교육과 69입)
이창목 (국어교육과 71입)
이창우 (경영학과 74입)
이창환 (국어국문학과 64입)
이현재 (경제학과 48입)
이현숙 (사회학과 63입)
홍예표 (치의학과 65입)
홍정희
홍정희 (회화과 65입)
홍지춘 (화학교육과 74입)
황기role (제약학과 故 국제호 교수의 부인)
황재철 (상과대학 17회 입)
황재홍 (치의학과 90입)
히로나가 헤이스케 (하버드대 명예교수)
Eduard J. Stadelmann (前 미네소타대학 교수)
Ken-ichi Arai (동경대 교수)
Peter S. Kim (MIT 교수)
Stanley Choy

전광영 (전광영아트센터 대표)
전병봉 (정책학과 동문의 부)
전상훈 (외교학과 78입)
전용필 (경명대학 정민근의 모)
전익산 (지구환경과학부 故 전재규의 부)
전해중 (동양학과 47출)
전희선 (연세푸른이비인후과 원장)
정달철 (고고미술사학과 故 정은임의 부)
정병욱 · 이춘희 (독어독문학과 故 정현수(03입)의 가족)
정영섭 (인류학과 66입)
정영현 (공업화학과 정순욱의 부)
정인식 (경제학과 58입)
정재선 (소비자아동학과 93입)
정재준 (前 경보전기 부회장)
정종곤
정중수
정지석 (약학과 60입)
정해문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생물교육과 58입) · 김옥진 (생물교육과 58입)
조경일 (약학대학 64입)
조동성 (경영학과 67입)
조병연
조병지 (법학과 46입)
조상익 (EMBA 14입)
조석준 (행정학 57출)
조영식 (수의학과 80입)
조옥환 (부산교통 대표)
조중수 (건국대학교 교수)
조한영 (상학과 43입)
조형준 (미학과 65입)
조흥연 (FNP,식품영양산업 CEO과정 7기)
차상근 교수 외 제자 12명
차영선
채성기 (원자핵공학과 59입)
채호석 (6대순) · 채재한 (7대순)
천문우 (약학과 61입)
최경준 (법학과 79입)
최규팔 (제약학과 70입)
최년교 (중어중문학과 67입)
최덕순 (간호학과 59입)
최민수 (기계공학과 76입)
최명선 (경제학부 교수)
최병오 (AFB, 패션산업 최고경영자 과정3기)
최스미 (간호학과 66입)
최애록 (간호학과 50출)
최원갑 (섬유교분자공학과 55입)
최윤재 (측산학과 73입)
최재열 (조소과 최민주의 부)
최정욱 (화학공학과 49입)
최정운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종원 (경제학과 78입)
최창원 (심리학과 83입)
최화형 외 3명
추현술 (전기공학과 55입)
홍원자 (임학과 故 홍원환의 부인)
허영구 (무역학과 72입)
한경구 (인류학과 74입)
한규범 (AMP 42기)
한규환 (기계공학과 68입)
한기춘 (의학과 52입)
한동현 (경영학과 85입)
한상복 (사회학과 56입)
한영우 (인문대학 명예교수)
한옥희 (회화과 79입)
한정희 · 김재혜 (행정학과 61입 · 법학과 61입)
허성도 (중어중문학과 68입)
허영인 (SPC그룹 회장)
헨리슨 (가정교육과 46입)
현재선 (농학과 44입) · 주승기
현정오 (농생물학과 66입)
현택환 (회화과 83입)
홍경자 (간호학과 62입)
홍계수 마리아 할머니 (법학과 72입 주경숙 동문의 가족)
홍길표 (컴퓨터공학부 홍지영의 부)
홍병각 (정치학과 55입)
홍선근 (철학과 78입)
홍성관 (사회사업학과 63입)
홍예표 (치의학과 65입)
홍정희
홍정희 (회화과 65입)
홍지춘 (화학교육과 74입)
황기role (제약학과 故 국제호 교수의 부인)
황재철 (상과대학 17회 입)
황재홍 (치의학과 90입)
히로나가 헤이스케 (하버드대 명예교수)
Eduard J. Stadelmann (前 미네소타대학 교수)
Ken-ichi Arai (동경대 교수)
Peter S. Kim (MIT 교수)
Stanley Choy

강스텔바이오텍
강신산
거평그룹
건일 제약
건화엔지니어링
경기도인재개발원
건남기업
경암교육문화재단
경영82홀카밍데이
경제학과 · 무역학과 82입 동기회
계수산업
고려아연
골프존
공영토건
과천시에향장학회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23기 일동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24기 일동
관사장학회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광동제약
교보문고
구원장학재단
국가정책백제원(ACAD) 총동창회 일동
국방과학연구소
국영지연엠 (최재원 정치학과 65입 · 김정숙 약학과 69입)
국제종합유통
글로벌아시아문화재단
김 · 장 법률사무소
김영사
김정문로에
까사미아
나산산업
남강장학회
남광토건
남영비비안
넥슨코리아
노키아티브씨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학과 동창회
농우박이오
다함넷
대동공업
대림대학
대성문화재단
대상문화재단
대아이앤씨 주식회사
대양 E&C
대영빌딩
대우건설
대우기전공업
대우엔지니어링
대우재단
대우테크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대한사료
대한수의사회
대한유화
대한통운
대불유예이피파운데이션
덕산디오종합건설
덕산스테이트
덕산에코빌
데스코
도부라이프텍
돈암장학회
동방
동방상호신용금고
동부대우전자
동서식품
동아건설산업
동아제약
동양강철
동철문화재단
동화산업장학재단
동화약품
두울장학재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로지스솔그룹
롯데관광
롯데쇼핑
메트라이프텍
메디슨
명진방
문산토코리아
무림피앤피
미래에셋
미래와대전
미래의동반자재단
민국저축은행

민율사
민호기 교수 유가족
비바패션
바이로매드
바이오엠티에이
방송문화진흥회
법대 39회 동문 일동
법대 84학번 동기회
법대 85학번 동기회
법대최고지도자과정 10기 일동
법대최고지도자과정 8기 일동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엘케이비엔과트너스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케이시애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
별넷
백산장학문화재단
본술김종한장학재단
부경양돈협동조합
비씨카드
사단법인 은울
사법대학 국어교육과 동문회
사법대학 수학교육과 동문회
사조산업
삼성공장학재단
삼송장학회
삼양사
삼양제넥스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삼일문화재단
삼일회계법인
삼전순약공업
삼한박막진공
삼호개발
삼화모터스
상명무역
상지상사
상지인터내쇼날
상진개발
생활과학대 2012 · 2013 출커밍 동문회망망학급
생활과학대 2014 · 2015 출커밍 동문회망망학급
생활과학대 2016 · 2017 출커밍 동문회망망학급
생활과학대 2018 · 2019 출커밍 동문회망망학급
생활과학대학동창회
서울대학교 ROTC 동문회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12회 동창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합창단 동문회
서울미소엔지니어
서울상대항상장학회
석원산업
선농문화포럼
성남시장학회
석산디오종합건설
성목문화재단
세무법인 조이
세아이온형문화재단
세아창원복수강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셀리드
소이산업
솔우재단
송천재단
송파재단
수경출판사
수석문화재단
수암장학문화재단
수의과대학 교수일동
스키부 동문회 일동
스파크바이오파마
서울메이선테크
신라교역
신앙매그
신의약품개발연구센터
신한장학재단
신흥
심명문화재단
설택
아모레퍼시픽
아성다이소
아성에이치애플피
안성농장
알앤엘바이오

애니월
애티미션
앨트벨민초장학재단
약학교육연수원 이수자일동
양지농장
에리트베이지
엑스베제
영림임업
오멜
오뚜기
오뚜기힐태호재단
오리엔트이엔지
오리온전기
오성벨에스티
오스텔임플란트
우덕재단
우아한형제들
윤경재단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유니베라
유신
유티씨인베스트먼트
유한재단
유한집빌리
윤민창의투자재단
윤송초창성문화재단
음악대학 피아노발전기금후원회
이수일 장학회
이오테크닉스
이지바이오
이투스교육
이희건 한일교류재단
인선문화재단
인촌기념회
인촌
인탑스
인터파크
일동제약
일동후디스
임산장학회
임진과학기술평화재단
재미서울대총동창회
재흥종서서울대학교총동문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정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수장학회
정현재단
제14기 최고지도자인문학과정
제너시스
저스텍
조비경농장학재단
종근당
총로구장학회
총화장학회
좋은책신사고
중앙백신연구소
지도자육성재단
지식노마드
진생사이언스
참존
창강재단
창진영농조합법인
창진기업
천연물과학연구소 교수 일동
천원장학회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최고산업전략과정
최고지도자인문학과정(AFP) · 최고지도자인문학과정(AFP) · 미래지도자인문학과정(IFP)
최혁영 장학회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동창회
카길에그리퓨리나문화재단
케이, 세, 텍
코오롱
크로엔리서치
트리폰트자산운용
트리코인베스트먼트
특수건설
패션그룹형지
포니정장학재단
효유먼
풀무원
프론티바이오
프리미어파트너스
피에스케이

하이에어코리아
한국PDA
한국SMC
한국간연구재단
한국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문화진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복합유통
한국산업은행
한국일콜산업
한국임팩티
한국외국인학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파지구국
한국증권금융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한국타이어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한샘출판
한수통상
한별
한일홀딩스
한대장학재단
해나천연물신약
해성문화재단
해성장학회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해태
현대건설
현대전자산업
현대투자증권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장학회
현우그린
휴플러스e파란재단
효성그룹
휴맥스
휴한재단
qualcomm
AMP 64기 일동
AMP 65기 일동
AMP 66기 일동
AMP 67기 일동
AMP 68기 일동
AMP 69기 일동
AMP 70기 일동
AMP 71기 일동
AMP 72기 일동
AMP 73기 일동
AMP 74기 일동
AMP 75기 일동
AMP 76기 일동
AMP 77기 일동
AMP 78기 일동
ASSET PLUS투자자문
E1
Eyagi(이아기) CAFE
GM
Goldman Sachs
KC그린홀딩스
KEILCO(KEPCO ILJAN CORPORATION)
KRX국민 행복재단
KT8투자증권
KTE
LG연암문화재단
NCSoft
OB맥주
OK 맥 · 정장학재단
Open Society Foundations
Qualcomm
SECMA
SIMPAC ANC
SNU 프리시전
S-Oil
SPARC 15 · 16 · 17 · 18기 일동
YBM

*가나다 순

2020. 6. 1. ~ 2020. 8. 31.	약정	출연 단위: 원
메가스터디교육	1,422,296,680	1,422,296,680
도부라이프텍	1,200,000,000	700,000,000
황재철 (상과대학 17회)	724,449,920	724,449,920
조경일 (약학대학 64입)	510,000,000	170,000,000
채호석 (6대손) · 채제한 (7대손)	507,000,000	507,000,000
하나제약		340,000,000
송원김영환장학재단	336,500,000	136,500,000
현대차 정몽구 재단	317,411,000	317,411,000
이현수 (농학과과 60입)	287,700,000	287,700,000
Open Society Foundations	234,820,000	234,820,000
대상문화재단	119,500,000	119,500,000
현송교육문화재단	104,000,000	104,000,000
로이드선급재단		103,079,323
KC그린홀딩스	100,000,000	50,000,000
김낙두 (약학과 53입)	100,000,000	100,000,000
김여순 (생물교육과 50입)	100,000,000	100,000,000
김용구 (외교학과 56입)	100,000,000	100,000,000
에스케이건설		100,000,000
이성계 (농학과과 79입) · 강선영	100,000,000	100,000,000
좋은책신사고		100,000,000
김순균 (의학과 60입)	95,090,887	95,090,887
형애장학회	90,157,000	90,157,000
임도빈 (행정대학원장)	74,810,650	25,000,000
TOYOTA MOTOR CORP.	70,000,000	70,000,000
진양제약	68,557,810	68,557,810
롯데장학재단	63,513,000	63,513,000
네이버	63,000,000	23,000,000
일주학술문화재단	61,239,000	61,239,000
세아이운형문화재단	60,000,000	60,000,000
아산사회복지재단	59,893,000	59,893,000
방일영문화재단	56,959,000	56,959,000
인싸이트	50,000,000	50,000,000
트라이코인베스트먼트	50,000,000	50,000,000
한이의료재단	50,000,000	
한일홀딩스	50,000,000	50,000,000
한화	48,000,000	48,000,000
영여영문학과 교수 일동	47,250,000	47,250,000
연강재단	44,060,000	44,060,000
강경선 (수의학과 교수)	42,000,000	42,000,000
NH투자증권	40,000,000	40,000,000
한재장학재단	34,821,000	34,821,000
창강재단	34,768,000	34,768,000
유한재단	32,739,000	32,739,000
윤병동 (기계공학부 교수)		31,950,000
교육자 (故 홍승수 명예교수의 배우자)		30,000,000
국가농림기상센터	30,000,000	10,000,000
김근호 (충남대학교병원 교수)	30,000,000	30,000,000
민현식 (국어교육과 73입)	30,000,000	30,000,000
신한은행	30,000,000	30,000,000
농여총회당재단	28,218,000	28,218,000
정수장학회	27,958,000	27,958,000
장일무 (약학대학 명예교수)	25,000,000	25,000,000
재단법인 나은	25,000,000	25,000,000
청일장학회	24,202,000	24,202,000
한화디펜스	24,000,000	24,000,000
한화생명보험	24,000,000	24,000,000
한화손해보험	24,000,000	24,000,000
한화솔루션	24,000,000	24,000,000
한화솔루션 첨단소재사업장	24,000,000	24,000,000
한화에너지	24,000,000	24,000,000
한화자산운용	24,000,000	24,000,000
한화투자증권	24,000,000	24,000,000
오뚜기합태호재단	23,267,000	23,267,000
윤송조창석문화재단	21,714,000	21,714,000
김철호 (외교학과 70입)	20,000,000	20,000,000
테스에썬그룹	20,000,000	20,000,000
이광희 (지리학과 59입)		20,000,000
정재교 (GLP, 글로벌리더십과정 제34기)		20,000,000
피피원	20,000,000	20,000,000
박윤정 (치의학과 교수)		19,620,000
최성화 (생명과학부 교수)	19,180,000	5,325,000
두울장학재단	19,016,000	19,016,000
엘트웰민초장학재단	18,183,000	18,183,000

남윤자 (의류학과 교수)	18,000,000	
보달장학회	17,896,000	17,896,000
해성문화재단	16,127,000	16,127,000
신흥연송학술재단	16,000,000	16,000,000
최기영 (전기공학과 74입)		16,000,000
미래인재육성재단	15,945,000	15,945,000
김성수 (경영학과 교수)		15,075,000
비케이네트웍스	15,000,000	15,000,000
송천재단	15,000,000	15,000,000
정하창 (약학과 제25기)	15,000,000	15,000,000
송파재단	14,557,000	14,557,000
이광진 (경영대학 04입)	14,060,000	
성동구인재육성재단	14,000,000	14,000,000
이상구 (컴퓨터공학부 교수)		13,320,000
채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상임이사)		13,200,000
조승아 (경영학과 교수)		13,160,000
김화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100,000
정현재단	11,992,000	11,992,000
재단법인 인촌	11,436,000	11,436,000
한국전력공사	11,324,000	11,324,000
미코		11,250,000
성육문화재단	11,094,000	11,094,000
김주근 (국제농업기술학과 교수)	11,000,000	11,000,000
박용호 (수의학과 교수)	10,950,000	10,950,000
대림수업장학문화재단	10,494,000	10,494,000
DB김준기문화재단	10,301,000	10,301,000
더랩프로젝트	10,281,708	10,281,708
방경숙 (간호대학장)	10,000,000	10,090,000
김병준 (동양사학과 교수)	10,000,000	10,030,000
AMPFRI.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제42기	10,000,000	10,000,000
ASP. 세계경제 최고전략과정 제39기	10,000,000	2,000,000
YBM		10,000,000
강준구 (ABKI.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 제10기)	10,000,000	10,000,000
관악회	10,000,000	10,000,000
구법진 (동양사학과 87입)	10,000,000	10,000,000
김남균 (무기재료공학과 80입)	10,000,000	2,000,000
뉴트리셀바이오	10,000,000	10,000,000
류근관 (경제학부 교수)	10,000,000	10,000,000
마천건설	10,000,000	10,000,000
마카조아		10,000,000
송영욱 (의학과 교수)	10,000,000	10,000,000
아마존 웹 서비스		10,000,000
윤종상 (체육교육과 52입)	10,000,000	10,000,000
이용현 (물리교육과 53입)	10,000,000	10,000,000
자연과학주식회사	10,000,000	10,000,000
정재철 (조소과 83입)	10,000,000	10,000,000
최희승 (간호학과 교수)	10,000,000	
코원파트너스	10,000,000	10,000,000
한국선급	10,000,000	10,000,000
홍병희 (화학부 교수)		10,000,000
홍한재단	10,000,000	10,000,000
돈암장학회	8,994,000	8,994,000
삼일문화재단	8,802,000	8,802,000
차국현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8,700,000
더라이트헨즈	8,653,000	8,653,000
여재익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8,581,990
안규리 (의학과 교수)		8,472,600
협성문화재단	8,456,000	8,456,000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8,107,000	8,107,000
성린장학재단	8,096,000	8,096,000
법무법인 율촌	8,000,000	8,000,000
윤경재단	7,882,000	7,882,000
남강장학회	7,442,000	7,442,000
김연명 (환경대학원 동문)		7,000,000
안산인재육성재단	6,853,250	6,853,250
마드리실내약단 (단장 이순자)	6,512,000	6,512,000
법무법인 화우	6,000,000	6,000,000
천종식 (생명과학부 교수)		6,000,000
테이스문화재단	6,000,000	6,000,000
해강대성장학회	6,000,000	6,000,000
강건욱 (약학과 교수)	5,600,000	
홍성수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5,425,050
이필상 (경제학부 교수)	5,400,000	2,500,000
루스키 미르 재단	5,280,726	5,280,726
신현우 (의학과 교수)		5,002,827
가송재단	5,000,000	5,000,000

네이버파이낸셜	5,000,000	5,000,000
류판동 (수의학과 교수)	5,000,000	1,000,000
서강문 (수의과대학장)	5,000,000	5,000,000
아이디텍 코리아		5,000,000
암법정 (물리천문학부 교수)	5,000,000	
윤여춘 (제약학과 교수)	5,000,000	5,000,000
이준호 (자연과학대학장)	5,000,000	5,000,000
종로구장학회	5,000,000	5,000,000
최년곤 (중어중문학과 67입)		5,000,000
한봉희 (법학과 77입)		5,000,000
조준장학재단	4,980,000	4,980,000
인촌기념회	4,884,000	4,884,000
김주형 (정치외교학부 교수)	4,780,000	4,780,000
레모넥스	4,530,000	4,530,000
백구현 (의학과 교수)		4,317,054
신영기 (약학과 교수)		4,285,200
윤희정 (산림과학부 교수)	3,000,000	4,250,000
김성훈 (前 제약학과 교수)	4,200,000	4,200,000
대은강원석장학재단	4,000,000	4,000,000
형남진장학재단	4,000,000	4,000,000
홍석철 (경제학부 교수)	4,000,000	
이인호 (경제학부 교수)		3,900,000
윤주영 (간호학과 교수)	3,200,000	3,699,980
강진아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교수)		3,630,000
시큐레티	3,600,000	3,600,000
이봉진 (제약학과 교수)		3,510,000
장선주 (간호학과 교수)		3,500,001
이경록 (경영학과 교수)		3,354,900
김성재 (간호학과 교수)	3,200,000	3,200,000
서은영 (간호학과 교수)	3,200,000	3,200,000
과천시애망장학회	3,000,000	3,000,000
구윤모 (응용공학과 교수)		3,000,000
김대일 (경영학과 88입)		3,000,000
김종원 (기계공학과 74입)		3,000,000
미래의동반자재단	3,000,000	3,000,000
민병철 (간호학과 학생의 학부모)	3,000,000	3,000,000
안성훈 (기계공학부 교수)		3,000,000
원영욱 (언론정보학과 학생의 학부모)		3,000,000
원진금속		3,000,000
이구철 (물리학과 55입)		3,000,000
조세희	3,000,000	3,000,000
채선미 (간호학과 교수)		3,000,000
학현사	3,000,000	3,000,000
한국섬유산업연합회	3,000,000	3,000,000
한병우 (약학과 교수)		3,000,000
홀트아동복지회	3,000,000	3,000,000
홍성완 (토목공학과 62입)		3,000,000
KT그룹희망나눔재단	2,998,000	2,998,000
산학협동재단	2,998,000	2,998,000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2,998,000	2,998,000
대산농촌재단	2,975,000	2,975,000
조비경농장학재단	2,975,000	2,975,000
진암장학재단	2,975,000	2,975,000
조재진 (치의학과 교수)		2,971,505
강승완 (간호학과 교수)		2,842,000
정종호 (국제대학원장)		2,760,000
삼송장학회	2,700,000	2,700,000
조제열 (수의학과 교수)	2,700,000	2,700,000
고봉찬 (경영학과 교수)		2,670,000
백운장학재단	2,500,000	2,500,000
한송장학회	2,500,000	2,500,000
임중장학재단	2,442,000	2,442,000
정산장학재단	2,442,000	2,442,000
제봉민병욱장학재단	2,442,000	2,442,000
포니성장학재단	2,442,000	2,442,000
이찬진 (법학과 83입)		2,400,000
박선현 (경영학과 교수)		2,300,000
김봉래 (화학교육과 85입)	2,143,391	2,143,391
백복현 (경영학과 교수)		2,106,180
김대규 (지구환경과학부 학생의 학부모)		2,000,000
누가의의원	2,000,000	2,000,000
동해종합기술공사		2,000,000
서울장학재단	2,000,000	2,000,000
신상섭 (경제학부 01입)	2,000,000	2,000,000
아이들과미래재단	2,000,000	2,000,000
연당장학회	2,000,000	2,000,000

영생한의원		2,000,000	2,000,000
정순학 · 정진희 (인문대학 교학팀)			2,000,000
조기웅 (화학과 66입)		2,000,000	2,000,000
카카오브레인			2,000,000
큰사랑이한애장학재단		2,000,000	2,000,000
장승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93,748
송욱 (체육교육과 교수)		1,800,000	
임종우 (화학부 교수)		1,800,000	1,800,000
이정우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1,749,000
이대건 (경영학과 03입)	1,500,000		1,710,000
최혁 (경영학과 교수)			1,560,000
강경훈 (의학과 교수)		1,500,000	1,500,000
광주시민장학회		1,500,000	1,500,000
김기원 (AIP. 최고산업전략과정 제38기)			1,500,000
김대용 (수의학과 교수)			1,500,000
박미혜 (성학과 교수)			1,500,000
박성훈 (기계공학과 58입)			1,500,000
속초메디칼약국			1,500,000
이기영 (보건대학원장)			1,500,000
이제승 (환경조경학과 교수)			1,500,000
정윤찬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1,500,000
최현자 (생활과학대학장)			1,450,000
덕영재단		1,302,600	1,302,600
김소영 (경제학부 교수)			1,200,000
나영일 (체육교육과 교수) · 황현자			1,200,000
박은진 (화학부 학생의 학부모)		1,190,000	1,190,000
이종묵 (국어국문학과 교수)		1,000,000	1,090,000
김병일 (토목공학과 83입)		1,080,000	
김종오 (토목공학과 74입)		1,080,000	1,080,000
성기점 (회화과 58입)		1,080,000	
강준호 (기획처장)			1,047,780
2019학년도 체육교육과 조교 일동		1,000,000	1,000,000
강문호 (치의학과 97입) · 정성창(치과대학 명예교수)			1,000,000
김동건 (법학과 65입)		1,000,000	1,000,000
김동수 (토목공학과 93입)		1,000,000	1,000,000
김배 (환경조경학과 03입)		1,000,000	1,000,000
김병기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1,000,000
김영도 (토목공학과 90입)		1,000,000	1,000,000
김호경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1,000,000	1,000,000
남홍기 (토목공학과 74입)		1,000,000	
류시완 (토목공학과 92입)		1,000,000	1,000,000
민병고 (국어교육과 교수)		1,000,000	1,000,000
박승익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 총영사)		1,000,000	1,000,000
박용성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1,000,000	1,000,000
박준범 (토목공학과 81입)		1,000,000	1,000,000
박찬민 (농공학과 82입)			1,000,000
박창진 (보건대학원 70입)		1,000,000	1,000,0

새롭게 마련한 기부자 예우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신규 예우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건강검진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에서 분야별 최고 전문 의료진의 검사와 최신 우수 장비를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부자 검진 할인 혜택 10~30%



© SNU Photo Gallery

서울대학교 미술관 특별과정 Art & Culture program

ACP-‘창의적 리더를 위한 예술문화과정’은 예술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가치경영을 추구하는 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기부자 수강 할인 혜택 30%
- 연 1회(12~2월) 모집



© SNU Photo Gallery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새로운 지식 정보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품격있는 삶을 지원합니다.

- 기부자 수강 할인 혜택 30%
- 지원프로그램: 시민교양과정, 북클럽<샤교독서>,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본 예우프로그램은 SNU HONOR CLUB 1억 원 이상 기부자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우 혜택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예우팀

02 - 871 - 1620 | snuf@snu.ac.kr

QR코드를 스캔하시면 SNU HONOR CLUB 예우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흘러보내기 아쉽다면,

서울대 인생샷 스팟을

스누오피셜에서 만나보세요.

다시 캠퍼스를 누빌 그날,

사진 한 장 남길 수 있기를.

@snu_official



다시 누리고 싶은 인생샷 스팟
캠퍼스의 아름다움,

언제나 당신 곁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더 가깝게



대표 홈페이지
snu.ac.kr



페이스북
facebook.com/
SeoulNationalUniversity



인스타그램
@snu_official



유튜브
youtube.com/
SeoulNationalUniversity



스누새편지
bird.snu.ac.kr

SNU NOW

온라인 뉴스룸
now.snu.ac.kr

소통매거진 <서울대사람들>은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호는 서울대학교 대표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 매거진 구독, 이번 호에 대한 의견, 신고 싶은 소식을 소통팀에게 알려주세요.

후기와 좋은 소식을 보내주신 분을 선정해 서울대학교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sotongteam@snu.ac.kr

도전하는 힘

유연하게 생각하고

도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울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www.snu.ac.kr